

2022년 주일예배

되새김의 은혜

함 께 서 라

(Stand Together)

신실한 청지기

기 도 문

주님께서
주일예배 때 저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예배시간 은혜받는 것으로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삶 속에서 묵상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언행이 성숙 되어 가게 하시고
삶을 인도하여 살아 있는 말씀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기적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심혈을 기울여 정성껏 준비한
전하는 자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였을까?
두렵사오니, 더욱 겸손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 세광교회 유창진 담임목사

✍ : 필자가 첨언한 글

목 차

일	일	제 목	본문	쪽
1	2	함께 서라	하나님 편에 서라	1
	9		구원의 반석 위에 서라	6
	16		주 안에 서라 파티는 끝났다.	11
	23		옳은 일을 위하여 서라	16
	30		믿음 위에 서라	22
2	6		불 속에서 굳게 서라	27
	13		종말을 위하여 서라	32
	20		믿음으로 전진하라	37
	27		믿음이 없이는	44
3	6	믿음으로 전진하라	믿음으로 순종하라	49
	13		없음(코로나 확진으로 조현식 목사 설교)	
	20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곽현우 목사)	54
	27		믿음으로 행동하라	58
4	3	예수님과 만남	예수님과 사탄의 만남	64
	10		예수님과 예루살렘 군중들의 만남	70
	17		예수님과 엠마오 제자들의 만남	76
	24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81
5	1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남	나의 주 나의 하나님	86
	8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한 아침 식사	91
	15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98
	22		주여 누구시니이까?	104
	29		모세의 부모의 믿음	110
6	5	믿음으로 전진하라	믿음으로 거절하라	116
	12		교회와 세상	122
	19		여리고 성은 왜 무너졌는가?	130
	26		라합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136

월	일	제 목		본문	쪽
7					
8					
9					
10					
11					
12					

1월 2일 주일

□ 함께 서라(Stand Together) 1 : 하나님 편에 서라(단1:1~9)

○ 시작하며

하나님은 2022년에 “함께 일어서라” 하십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5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편에 서라” 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의 연대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약 2,000 B.C.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약속

약 1,400 B.C. 출애굽

약 1,000 B.C. 다윗 왕국

722 B.C. 북이스라엘 멸망(앗수르에)

605 B.C. 바벨론 침공, 포로

다니엘 605 B.C. - 539 B.C.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했지만 애굽의 노예가 되게 했고, 4백여년 만에 출애굽하여 우여곡절 끝에 다윗 왕국을 세우지만 3대 만에 남북으로 갈라져 지내다 북 이스라엘은 B.C. 722년 앗수르에 멸망하고, 남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다니엘 이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가?” 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질문에 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론

1. 유다의 멸망

⇒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나라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멸망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이 우상숭배한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성전 기물이 우상숭배하는 곳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그들의 예배와 신앙생활이 끝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하시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을 “주께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스라엘 죄악 때문임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어 성경에 나오는 사건의 결말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있지만, 당시 그들은 몰랐습니다.

유다의 멸망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 1장 / 개역개정)

1.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삼 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2.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열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2. 네 소년(단 1:3~7)

바벨론이 성전 기물을 옮겨 가고 포로로 끌어난 것 외에도 그들은 유다의 미래까지 멸망시켜 포기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포로들에게 철저한 식민화 정책입니다. 창씨개명을 하게 하고, 바벨론식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바벨론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상징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세상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화적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화적 성도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성도(?)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식민화 정책에 따라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일제시대 창씨개명을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2.1. 개명전

다니엘 -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나 - 여호와는 은혜롭다..

미사엘 -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아사라 -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2.2. 개명후

벨드사살 -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키소서

사드락 - 마르독(태양신)의 명령

메삭 - 아쿠(월신)같은 이가 누구인가?

아벳느고 - 느고의 종

이처럼 창씨개명은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이름이 우상과 관련된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왕의 음식이란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우상숭배를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소년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3. 뜻을 정하다(단 1:8~16)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일어설 수(살 수) 있다

8절에 보면 “뜻을 정하여~” 라고 나옵니다. 창씨개명은 받아들였지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결단코 반대한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부르든 그것은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나 음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시키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런 결심을 미리 했다는데 의미가 또 있습니다. 유혹이 오기 전에 미리 함으로 타협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들을 미리 결심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구장 생각> 예를 들어 술을 권하는 상사 앞에서 술을 거부할 때 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고 심할 때는 분위기를 망쳤다고 질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상사는 자신의 권위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상사에게 정중하게 “나는 신앙적 양심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식 등에서 술 마시는 것을 배려해 주시면 합니다.”라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러면 상사는 무시당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고 상사 자신의 권위도 세워지게 됩니다. 바로 다니엘의 방법입니다.

다니엘은 지혜롭게 제안했고, 실천하여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습니다.

☞ 대대장 시절 술 이야기

나는 술을 구원과 연결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크리스찬에게 금주는 하나의 덕을 세우는 문화가 분명하다.

그래서 1996년 군에서 집사 안수를 받을 때까지는 부대 모임에서 술을 마셨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성도가 “안수집사도 술을 마셔”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크게 회개했다.

나는 신앙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면 금주하는 것이 맞겠다 하고 그 이후 일체 금주를 선언했다.

그러나 직업군인이 금주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상상 이상의 어려움이 있었다. 상급자가 권하는 술을 거부하기보다 더 어려운 것은 지휘관으로 부대원들과 회식을 하는데 술을 마시지 않고 있으면 그 분위기가 어떨겠는가?

술을 마시지 않고도 취한 것처럼 행동해 주어야 했다.^^ 그래서 그 때 칠성 부대였던 그 부대에서는 나 때문에 칠성소주(칠성 사이다를 칠성소주라 부름)가 탄생했다.^^

또한 이 무렵부터 군 내 음주문화가 바뀌게 되어 술을 강제로 권하지 못하게 되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이후 수많은 에피소드를 남겼지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 했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을 보고 오히려 신뢰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게 되어 결국 승리하게 했다.

4. 하나님의 응답(단 1:17~21)

⇒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복을 주신다.

이런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상을 주셨습니다. 7절을 보면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여기서 학문은 세상을 대표하는 바벨론 세상의 학문도 포함합니다. 세상 학문에도 능통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고레스 왕 원년이란 다니엘이 엄청 장수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복을 주시고 역사를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수천 킬로를 걸어 온 동방박사들은 바로 다니엘의 후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니엘의 후예들은 메시아를 찾아 유대로 온 것입니다.

○ 결 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가 온갖 고난 속에 처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겠는가? 라고 서두에 질문을 했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 그 답은 “있다”입니다.

유다는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다니엘서를 통해 우린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창씨개명을 당했지만 뜻을 미리 정해 우상의 제물 먹기를 거부했고 이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큰 상으로 응답했습니다.

학문에 능통하고 장수의 축복도 주셨고 그 후예들이 메시아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다니엘이 끌려갔던 그 길을 따라 유다까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있는 바로 그 곳에서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1월 9일 주일

□ 함께 서라(Stand Together) 2 : 구원의 반석 위에 서라 (단2:44~45)

○ 시작하며

평화봉사단에 전해진다는 아나콘다를 만났을 때 생존비결의 예화가 주는 교훈은 세상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다니엘서를 통해 그런 상황에 대비하여 그 답을 살펴봅니다.

○ 본 론

1. 우리가 통제하지 못 할 일들이 항상 있다.

(다니엘 2장 / 개역개정)

1.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이 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5.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6.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13. 왕의 명령이 내리매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우리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최악의 경우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 권한과 능력의 차이가 있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절대권력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일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로 바벨론 네부카드네자르 2세를 말합니다. 그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바벨론 공중정원을 만들었고, 채색 벽돌을 사용하여 건축하였으며, 운하를 건설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도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꿈을 꾸고 번민했다. 5~6절 꿈의 해석을 위해 주변 사람을 괴롭게 했다. 말도 안 되는 주문을 했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을 잔혹하게 죽이려 했습니다. 다니엘도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항상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항상 있다.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그 안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또한 항상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반응”, “나의 선택”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반응하고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2.1. 첫째, 지혜롭게 반응하라

(다니엘 2장 / 개역개정)

14. 그 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15.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은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지혜롭고 예의 바르게 말을 했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하고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잠언에서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 사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25:11) 우리도 이웃에게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부드럽고 공손하게 말해야 합니다.

명철하고 슬기롭게 말하라! 부드럽고 공손하게 말하라!

2.2. 둘째, 당황하지 말라

(다니엘 2장 / 개역개정)

15.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16.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죽음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냉철했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하면 실수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근위대장에게 “어찌 그리 급하냐 시간을 달라”라며 그러면 해석을 알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과 요셉처럼 어디서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2.3. 셋째, 기도하라

(다니엘 2장 / 개역개정)

17.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한 행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한 것입니다. 스스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부탁하여 함께 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반드시 있지만 이에 대한 나의 태도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함께 기도하는 기도동역자 즉 중보기도팀이 있었던 것입니다.

3.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이 항상 계신다.

(다니엘 2장 / 개역개정)

20.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21.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22.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위 본문처럼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절대절명의 상황에서도 잠을 잘 수 있었고 하나님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여 주셨습니다.

3.1. 세상 나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 주신 환상은 세상 나라는 흥망성쇠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못할 것이다. 였습니다.

역사는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 것처럼 흥망성쇠가 되어 왔습니다.

그토록 부강하였던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페르시아는 헬라에 멸망했고, 세상은 강력한 철을 상징하는 로마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결국 멸망하고 분열되어 오늘날 유럽 EU 국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말에 돌이 내리침으로 결국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과 느브갓네살은 같은 꿈을 보았지만, 전혀 상반된 반응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굴복했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다니엘은 평온하게 잠을 잘 수 있었고 꿈의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느브갓네살은 자신이 통제하려 했습니다. 자신의 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번민했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3.2. 하나님 나라

(다니엘 2장 / 개역개정)

44.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45.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할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종말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이단으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재림 날짜, 종말이 어느 날짜에 올 것이라 하고 하는 것은 모두 가짜입니다. 그것은 “모릅니다”가 정답입니다.

종말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린 아름다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아무리 강력한 세상 나라도 결국 죄악 된 세상은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십니다.

우린 이긴 자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 선승부대 이야기

나는 소령 때 선승부대라는 곳에서 근무했다. 선승이란 뜻은 이겨 놓고 싸운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전투를 하기 전에 병사들에게 이미 이긴 전투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때 병사들의 사기와 전투에 임하는 자세가 어떠하겠는가?

그래서 이미 이긴 자라는 말씀이 더 와닿았다.

○ 결 론 :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일하신다.

(다니엘 2장 / 개역개정)

48.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49.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하나님은 종말에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지만 현세에서도 복을 주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굴복하고 기도했던 다니엘은 왕궁에서 왕을 모신 신하로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었고, 기도의 동역자 세 친구는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 구원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라

십자가는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반석 위에 서는 것입니다.

반석 아래 있으면 깨어집니다.

1월 16일 주일

□ 함께 서라(Stand Together) 3 : 주안에 서라 파티는 끝났다 (단5:1~6)

○ 시작하며

본문의 시대는 신 바벨론 왕조시대이고 벨사살 왕은 신 바벨론 마지막 왕으로 실존 인물이고 사건 역시 역사적인 사실이다.

신 바벨론 이 페르시아 메대와 싸우다 패하여 왕궁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 귀족 청년 1천명이 모여 파티를 하는 것이다.

멸망 직전에

그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잊으려고 파티를 하고 그 두려움을 잊으려 합니다. 현재 세상과 흡사합니다. 현대인들도 돈 파티, 쾌락 파티, 권력 파티, 쇼핑 파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의 두려움을 잊으려 합니다.

파티는 우상숭배로 이어집니다. 성전 기구들로 술을 마신 것은 자신들이 만든 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다고 한 것입니다.

☞ Tip : 신바벨론 왕 계보 이해

느브갓네살 B.C. 604~562

에월므로닥 B.C. 561~560 (아들, 암살, 왕하25:27~30)

네르갈사레셀 B.C. 559~556 (사위1, 렘39:3)

라바시 마르둑 B.C. 556 (외손자, 암살)

나보니두스 B.C. 556~539 (사위2)

벨사살 B.C. 539~538 (외손자, 패망, 단5:29)

느브갓네살과 이후 왕조는 역사적으로 신 바벨론을 말한다. 느브갓네살은 주전 562년에 죽고 아들 에월므로닥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지만 주전 560년에 네르갈사레셀(사위1)에게 암살을 당한다.

네르갈사레셀은 자기 아들 즉 느브갓네살의 외손자인 라바시 마르둑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지만, 그는 주전556년에 느브갓네살의 사위2 (나보니두스)에게 암살당한다.

나보니두스는 주전 539년에 자기 아들 벨사살(느브갓네살 외손자)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지만 주전 538년 메대 다리오 왕에게 죽임을 당하고 신 바벨 손은 멸망한다.

○ 본 론

1. 파티는 끝났다 (단5:1~6, 30~31)

벨사살 주관하에 실시된 파티 중 석회벽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석회벽에 글자를 쓰게 되고 이를 본 벨사살 왕은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여 파티가 끝나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 파티에 초청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파티에 초대하기 싫어합니다.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에 봉착하면 찾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자 다니엘을 찾게 됩니다.

다니엘은 경고가 왜 있게 되었는지를 먼저 선대왕 느브갓네살의 예를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느브갓네살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쫓겨났지만 하나님 앞에 겸비할 때 다시 회복시켜 주셨지만 벨사살 왕은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독하였기에 경고하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 경고의 계시 :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니엘 5장 / 개역개정)

- 26.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 27.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 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 28.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 말은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세워서 이미 끝났다 저울에 달아 보니 부족하여 나라를 나누어 메대와 바사에게 준다.”입니다.

그날 밤 벨사살은 죽고 바벨론은 멸망하고 페르시아에 정복당한다.

2.1. 메네 : 숫자를 세다. (Numbered)

(시편 90편 / 개역개정)

- 12.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메네는 “숫자를 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는 경고입니다.

세상의 날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정해져 있으니 남은 날은 새어 가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날을 세어 가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을 살면서 남은 날을 계산하며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약 100만명이 38년 동안 죽었습니다. 하루에 평균 87명이 죽고 장례를 치루었을 겁니다. 모세는 매일 80번이 넘는 장례를 보면서 남은 시간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형 선도를 받고 사형장에서 살아남은 도스토예프스키는 이전과는 완전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사형장으로 가면서 “내가 먹는 아침밥이 마지막이구나 내가 호흡하는 이 공기가 마지막이구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후 그는 감사함으로 살게 되었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이 뭐가 있겠냐며 용서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가장 중요한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 첫번째 교훈 : 나는 나의 날들을 계수하면서 살고 있는가?

2.2. 데겔 : 무게를 재다. (Weighed)

(사무엘상 2장 / 개역개정)

3. ... 여호와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 개역개정)

20.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의 무게를 재 보십니다. 그런데 내가 무게(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무겁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삶이 무게 있는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일까? 지금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가치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 두라 하십니

다. 하나님께 가치 있는 삶이 진정 가치 있고 무게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가치 있는 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만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목마른 자에게 주는 물 한 모금, 굶주린 자에게 주는 음식, 헐벗은 자에게 주는 의복 한 벌이 가치 있는 것이라 말합니다.

❖ 두 번째 교훈 : 나는 하나님께서 가치를 두시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가?

2.3. 우 바르신 : 나뉘어 지다. (Divided)

(갈라디아서 6장 / 개역개정)

7.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 바르신에서 우는 접속사이고, 바르신은 나누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나누어져 조각되어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한 일에 대해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옵니다. 이 결과의 법칙이 있습니다.

① 심는 대로 거둔다. 사과를 심으면 사과를 거둡니다.

②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둔다. 씨앗 하나를 심으면 수백 배의 열매를 맺게 되고, 작은 말 한마디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③ 심은 후 시간이 오래 걸린다.

결과와 법칙을 보면 한 가지 궁금증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도 결과의 법칙이 적용되어 우리가 무엇해야 구원을 받는 것인가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보시는 것은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 보시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의 경고는 벨사살 왕은 나라가 망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잘못 심으면 이 땅의 삶이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 세 번째 교훈 : 나는 항상 결과(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며 살고 있는가?

3.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

(히브리서 3장 / 개역개정)

15. 성경에 일렸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너무 늦게 들었습니다. 돌이킬 시간이 없이 그날 죽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돌아서야 합니다. 죄를 멈추어야 합니다. 지금 성장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지금 순종한다면 너무 늦은 것이 아니지만 지금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 그리스도 안에 서라 파티는 끝났다.

○ 결 론 : 우리의 소망

(로마서 5장 / 개역개정)

10.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의 경고! 우리를 세워 보고, 제 보시지만 우리의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대체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무게를 재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으로 이렇게 쓰십니다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1월 23일 주일

□ 함께 서라 (Stand Together) : 옳은 일을 위하여 서라 (단6:10)

○ 시작하며

다니엘서의 대표적인 사건은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85세쯤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다니엘이 10대 때 포로로 끌려와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페르시아) 다리오 왕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 다니엘은 느브갓네살이 즉위한 B.C.605년(?) 무렵 포로로 끌려 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때가 10대 소년이였다. 그런데 느브갓네살이 즉위하고 67년 후인 B.C.538년경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의 다리오 왕 시대이니 80세가 넘는 것은 분명하다. 구체적인 연대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느브갓네살 즉위 연도를 B.C.604 또는 605년, 패망을 B.C.538 또는 539년이라는 기록도 있다.

멸망한 바벨론의 신이었지만, 다니엘은 메대의 3명의 총리 중에 으뜸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기하고 반대하는 다른 총리와 고관들이 있었고 이들이 모함하여 궁지로 몰아넣었지만 다니엘은 우뚝 섰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오랜 사귄과 동행함이 있었기에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 본 론

1. 옳은 일을 위하여 서라

1.1. 반드시 적이 있다.

우리가 우뚝 세워질 때 세상은 방해하는 사람,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시기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가까운 내부에 있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은 함께 총리를 하는 자들과 고관들이었습니다.

반드시 적이 있습니다.

1.2. 깨끗한 삶을 목표로 삼으라

(다니엘 6장 / 개역개정)

4.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

다니엘을 포함한 다른 총리와 고관들은 다니엘의 뒷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이 탈탈 털어도 깨끗하도록 옳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에게 흠잡을 것이 없자 적들은 근본적인 것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양심적으로도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옳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1.3.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 6장 / 개역개정)

10.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을 포함한 자들은 왕에게 왕을 위한 법을 만들자고 아첨을 합니다. (7절) 그러나 그것은 왕을 위한 법이 아니라 다니엘을 올무에 걸리게 하고자 한 법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반드시 걸려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옳은 믿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들의 예상대로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올무에 빠 박으로 걸린 것입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

다니엘의 가능한 선택은 있었습니다.

- ① 잠깐 한 달만 기도를 멈추며 적당히 타협하는 것
- ② 기도하는지를 모르게 마음으로만 기도하며 세상을 속이는 것
- ③ 계속해서 전에처럼 기도하는 것

그런데 다니엘은 ③번을 선택했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걸리면 죽게 될 것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올무에 걸리도록 유도했던 세

력들은 그 순간을 아마 현장 생중계를 했을 것입니다.

옳은 일을 위해 일어서야 합니다. 옳은 일을 위해 일어나기 위해 어떤 제약도 없어야 합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보고서도 사실 다니엘은 사자 굴에서 건지실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위해 일어나는 것은 어려움과 심지어 죽음도 각오해야 합니다.

◆ 마틴루터킹 : “만일 내가 어떤 일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일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본혜퍼 : 예수님께서 우릴 부르실 때 두 가지 “와서, 죽으라”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했고,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옳은 일을 위해 일어서야 합니다.

2. 일어서기 위하여 무릎을 꿇으라

2.1.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라 (단6:10)

다니엘은 죽을 줄 알면서도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전에 하던 대로”, 다시 말해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삶이 습관이었습니다. 환난 날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습관이 옳은 일에 우뚝 서게 합니다. 달인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을 보면 철저히 습관처럼 훈련한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한 달인이고 전문가입니까?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달인이고 전문가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기도하는 무릎을 꿇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3.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3.1. 다니엘과 사자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내 생각과 방법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을 믿고 결과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사자 굴에 던져졌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만든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도 어찌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시 말해 왕은 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 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23절에서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라며 사자 굴에서 살아 나온 다니엘을 보고 사자 굴에서 다니엘이 무얼 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 굴속의 다니엘인가? or 다니엘 속의 사자들인가?

(베드로전서 5장 / 개역개정)

8.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를 보면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성도)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소리는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사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사자란 재정(물질), 관계, 건강, 아픈 사건 등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자들은 우두머리 사자에게는 꿈쩍을 못합니다. 따라서 그 우두머리 사자를 찾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 개역개정)

5.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자란 “고대로부터 짐승들의 왕으로 불렸던 사자의 힘과 용기와 위엄스러운 모습으로 승리의 메시아를 상징”(만나 주석 참고) 즉, 왕을 상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우두머리 사자입니다. 우두머리 사자이신 예수님이 다니엘의 사자 굴에서 다른 사자들로부터 다니엘을 지켰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에 있던 그 날밤 누가 더 평안한 밤이었습니까?

◆ 다니엘은 평안했습니다. 예수님이 지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 다니엘을 모함하여 사자 굴에 던져 넣은 신하들은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의 사자와 밤새 싸워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 개역개정)

33.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이기셨다 하십니다. 유다 지파 사자가 다른 사자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 개역개정)

17.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18.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바울 마지막 서신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서신에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라고 고백하며 주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 굴에서 건져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다니엘은 유대 사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었지만,

그를 모함했던 다른 신하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었습니다.

○ 결 과

옳은 일을 할 때도 반드시 적이 있습니다. 적들에게 올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위협과 방해로 해도 우리는 옳은 일을 위하여 서야 합니다. 설령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더라도 다니엘처럼 옳은 일에 바로 서야 합니다.

환난 날에 옳은 일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옳은 삶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삶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에 대하여 하

나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은 다릅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방법이 맞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도 사자 굴에서 어떻게 살아 나오게 하실지 몰랐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자 굴에 유다 지파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고 우두머리 사자가 다른 사람들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다니엘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모함했던 세상에서 잘나가던 다른 신하들처럼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1월 30일 주일

□ 함께 서라(Stand Together) : 믿음 위에 서라 (단10:10~19)

○ 시작하며

오늘 말씀은 기도 생활에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랜 기간 물질, 건강, 관계, 자녀 문제 등 인생사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기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몇 차례 나누어 귀환했지만 다니엘은 귀환하지 못하고 남아 있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나이 때문에 귀환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 다니엘은 메대 다리오 왕 때인 나이 85세 경에 사자굴 사건이 있었고, 본문의 시기는 메대를 이은 바사 고레스 왕 3년이니 거의 90세 가까운 나이였을 것이다.

○ 본 론

1.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라

(다니엘 10장 / 개역개정)

5. 그 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6.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7.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8.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9.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10.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다니엘은 환상 중에 전쟁에 관해 봤습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21일 동안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금식기도를 21일 동안이나 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는데 끝날 때쯤 환상 중에 히데겔 강가에서 한 사람을 만

나게 됩니다.

학자들은 이때 만난 그분이 예수그리스도시라고 말합니다. 예수그리스도는 창조 때에도 계셨고 구약시대에도 계셨습니다. 풀무 불 가운데도 사자 굴에도 계셨습니다.

다니엘은 예수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밧모섬에서 요한이 본 모습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다니엘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 몸(교회) : 황옥

◆ 얼굴 : 번갯빛 같고 광채가 남

◆ 눈 : 햇불 같음, 모든 것을 보는 눈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어 대제사장 무리에게 수모를 당할 때, 예수님을 부인하며 멀찍이서 불을 쬔고 있는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 팔과 발 : 청동

◆ 목소리 : 무리의 소리 같았습니다.

이 모습은 요한이 밧모섬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니엘 혼자 봤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사도바울도 다메섹에서 혼자 봤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탈진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고 탈진했고,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승리 후 오히려 쫓기는 신세가 되어 탈진했습니다. 우리의 강함은 무기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의 힘은 아무 소용없고 나약한 존재임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사람이 된 다니엘을 통해 세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1.1.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생각하시고 보살피신다.

(다니엘 10장 / 개역개정)

10.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어뜨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11.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어져 일어서니

다니엘을 통해 주는 교훈은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생각하시고 보살피십니다.

하나님은 탈진한 다니엘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You raise me up

하나님은 쓰러진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라고 하시며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1.2.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 많이 행하신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 많이 행하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1.2.1. 우리의 기도는 시작할 때 응답을 받는다.

(다니엘 10장 / 개역개정)

12.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기도는 시작할 때 응답을 받는다. 기도의 신비한 비밀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보일 때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응답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장 23절)

하나님은 기도를 시작할 때 응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지만, 다니엘에게 보인 것은 21일 지난 끝날 무렵이었다. 그러나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응답하셨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1.2.2.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열쇠다.

(다니엘 10장 / 개역개정)

13.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십일 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 주므로

기도 응답이 늦게 도착한 것에 대해서 영적 세계의 모습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지만, 바사 왕(사탄)이 막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탄의 방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21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기도할 때 사탄을 물리치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기도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열쇠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딴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전투가 나옵니다. 이 전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를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이스라엘을 아말렉이 가로막은 것처럼 믿음의 성장을 사탄은 가로막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투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이 르비딴 골짜기에서 했지만, 사실은 승리는 모세의 기도 현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승리했고 기도를 멈출 때 패했습니다.

1.3. 하나님의 강함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진다.

(다니엘 10장 / 개역개정)

17.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18.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19.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니엘을 통해 주는 교훈 셋째는 하나님의 강함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집니다. 사도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라고 고백한 17절의 상황이 은혜입니다. 그럴 때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라는 18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나를 만지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만지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작동합니다.

○ 결 론

다니엘은 환상 중에 전쟁을 봤습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21일간이나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다가 기도가 끝날 무렵 환상 중에 예수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창세 때에도 구약시대에서도 그리고 풀무 불과 사자 굴속에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혼자 봤으며 사도바울도 다메섹에서 혼자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각자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면 탈진하고 자신이 무기력한 존재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생각하시고 보살피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 많이 행하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의 비밀은 우리의 기도는 시작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열쇠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강함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집니다.

2월 6일 주일

□ 함께 서라(Stand Together) : 불 속에서 굳게 서라 (단3:16~18)

○ 시작하며

굳게 서기를 원하십니까?

평범 이상의 삶을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해답이 있습니다.

불 속(환난)에서 우뚝 서기 전에 세상에서 다시 말해 일상의 평범한 삶에서 먼저 우뚝 서야 합니다.

세상의 신상, 즉 세상이 추구하는 우상(물질, 권력, 명예 …)에 절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뚝 서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왜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을까?

사람들은 행동을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결정 원리에 따라 한다고 합니다.

- ◆ 환경 : 주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 ◆ 편함 : 무엇이 가장 쉬운가?
- ◆ 비판 :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 ◆ 확신 :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세 친구는 환경과 편안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고려해 결정하지 않았고 확신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혹시나 환경이나 편안함. 그리고 주변의 비판 때문에 행동을 결정했다면 확신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3장 전체를 세부적으로 살펴봅니다.

1. 그들은 절하지 않았다.

⇒ 질문1 : 나의 핵심 정체성과 가치는 무엇인가?

(다니엘 3장 / 개역개정)

1.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육십 규빗이요 너비는 여섯 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12.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

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브갓네살은 약 30m 크기의 금 신상을 두라 평지에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 앞에 절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은 엎드려지도록 한 것입니다. 복종하도록 강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나의 핵심 정체성과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세 친구의 정체성은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바벨론의 지방을 통치하는 고위 관리급 공무원이고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의 명령에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고위 공무원으로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그에게 그의 핵심 정체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에 절할 수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포로로 끌려와 바벨론의 고위 공무원이라는 정체성이 자랑스러울 수 있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절하거나 섬기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체성을 세우는 것은 핵심 가치입니다. 핵심 가치란 다른 가치를 포기하게 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그들에게 핵심 가치는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가치(일, 직업, 가정, 자녀, 꿈 등등)에 앞선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들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었을까? 그들의 어린 시절 성장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 세 친구 성장과정 시대 상황

이들의 유년 시절은 유다 마지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 종교부흥이 일어난 시기였다.

유다 16대 왕인 요시아 왕 18년에 성전을 수리하다 율법책을 발견하자 요시아 왕 주도하에 회개하고 부흥의 물결이 일어난 후 13년간 이스라엘의 종교부흥이 일어났다.

그때 세 친구는 성장기를 보내면서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PAT가 실시되었습니다.

어릴 적 신앙교육이 중요합니다.

2. 그들은 굽히지 않았다.

⇒ 질문2 : 나는 왜 하나님을 섬기는가?

(다니엘 3장 / 개역개정)

16.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않은 세 친구에게 다시 절하도록 권했지만, 이들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라며 다소 도발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을 섬기는가? 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생각 그래서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지 않고 또 다른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을 섬기거나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한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절하지 않게 했습니다.

에스더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며 왕 앞에 나갔습니다.

3. 그들은 불에 타지 않았다.

⇒ 질문3 : 나는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가?

(다니엘 3장 / 개역개정)

24. 그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25.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결국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불에 조금도 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풀무불 속에는 결박되지 않은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넷째 사람을 “신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서와 히브리서를 보면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가? 라는 질문에 “아멘”이라
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 개역개정)

2.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
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
하리니 3.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
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히브리서 13장 / 개역개정)

5.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 질문4 :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다니엘 3장 / 개역개정)

28.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다니엘 3장 28절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느부갓네살의 고백입니다. 풀무불에
던졌던 원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게 했습니다. 불 속에서 굳게 서 있
었고, 세상은 예수님을 봤으며 그들이 나왔을 때 세상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
었습니다.

(말라기 3장 / 개역개정)

3.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
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릴 연단 하십니다. 은 세공업자가 연단 할 때 자신의 얼굴을 녹
인 은물에 비쳐 자신의 얼굴이 정확히 나타날 때가 가장 순수한 은이라고 합
니다.

하나님도 우릴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우릴 연마하신답니다.

○ 결 론

불 속에서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확신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고전16장 / 새번역)

13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이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14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세상 권력에 절하지 않았고, 굶하지 않아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세 친구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네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1. 나의 핵심 정체성과 가치는 무엇인가?
2. 나는 왜 하나님을 섬기는가?
3. 나는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가?
4.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2월 13일 주일

□ 함께 서라 (Stand Together) : 종말을 위해서 서라 (단12:1~13)

○ 시작하며

다니엘은 10대 소년일 때 포로로 끌려간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90세쯤 되어 마지막 환상을 보고 종말에 대한 계시를 기록한 것으로 마칩니다.

다니엘은 1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봤습니다. 성경의 예언과 환상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미래에 무슨 일이 날 것인가에 관심을 두지만, 그것이 예언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언과 환상을 보여주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만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 구구절절 마다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실 Fact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됩니다.

다니엘 11장 35절까지 말씀은 당시에는 예언이었지만, 지금은 모두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이 되었습니다. 예언대로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36절부터 말씀은 앞으로 있을 예언 즉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종말에 대한 환상을 통해 종말을 위해서 서야 함을 살펴봅니다.

○ 본 론

1. 환상들에 대한 다니엘의 반응 (단7:15, 28, 8:27, 10:16)

<다니엘의 반응>

- ◆ 7:15 “중심에 근심하며~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 ◆ 7:28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 ◆ 8:27 “환상으로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 ◆ 10:16 “환상으로 근심이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다니엘은 세상 권력자 앞에도 굴하지 않았고 사자 굴속에서도 살아 나온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한 사람이었지만 환상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다니엘 10장 / 개역개정)

19.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니엘 10장 / 쉬운성경)

19. 그가 말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여라. 이제 강해져라, 강해져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게 힘이 생겨났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주여, 내게 힘을 주셨으니 이제 말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해져라 하시며 쓰러져 있는 다니엘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1.1.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인식하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슥3:17)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얼 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십니다.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릴 사랑하신다는 말이 70번 이상이나 기록되었습니다. 사도바울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라며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 개역개정)

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1.2. 두려움을 거절하라

두려움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두려움은 능력을 제한하고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 개역개정)

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

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움과 싸워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싸워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세상은 말을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1.3. 주님의 손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며 주님께서 평안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서도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 개역개정)

36.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런데 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가? 염려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각에 뛰어난, 다시 말해 우리 사고로는 이해되지 않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 개역개정)

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1.4. 주님의 능력을 받아라

다니엘 10장 19절의 “강건하라”는 주님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라고 고백합니다.

2. 두 가지 질문

다니엘 12장은 소망의 말씀입니다. 12장의 예언은 모든 예언의 모본이 되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자들은 이를 임의로 잘못 해석해서 거짓 예언이 나옵니다.

두 가지의 가장 궁금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이단이 나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바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2.1. 어느 때까지입니까?

(다니엘 12장 / 개역개정)

6.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첫 번째 질문은 종말이 언제인가? 입니다.

정말 궁금한 질문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했던 질문입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 천이백구십 일, 천삼백삼십오 일, 하며 말씀을 자세히 주셨는데 그 위대한 다니엘도 깨닫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봉함하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종말이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정해져 있지만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이 중요합니다.

2.2.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니엘 12장 / 개역개정)

8.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다음 질문은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니다. 이에 대해 “마지막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삶을 말씀하십니다. 다음과 같이

① 정결해야 한다.

선악이 더욱 극명해지고 중립 지대는 없어질 것입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② 인내해야 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③ 마지막까지 네 길을 걸어라 합니다.

3. 너는 마지막까지 (일어서서) 신실하게 네 길을 걸어라

(다니엘 12장 / 개역개정)

13.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

(다니엘 12장 / 바른성경)

13. 너는 마지막까지 네 길을 가거라. 네가 안식할 것이며 마지막 날에는 네 유업을 누릴 것이다.

환상 중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너는 가서 마지막까지 네 길을 가거라”라고 하셨습니다. 네 길은 어떤 길일까?

- ① 끝날까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세상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 ② 구원의 반석 위에 서야 합니다.
- ③ 옳은 일을 위해 서야 합니다.
- ④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 ⑤ 불 속에서 굳게 서야 합니다.

○ 결 론

다니엘은 말년에 환상을 봤습니다. 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 주셨는데 그중 대부분은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이 되었고 종말에 대한 예언만 남아 있습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번민하고 두려워 쓰러졌는데 쓰러진 다니엘을 주님께
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다니엘을 만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 ①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인식하라
- ② 두려움을 거절하라
- ③ 내(주님) 손에서 평안을 누리라
- ④ 능력을 받아라

다니엘은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다니엘의 예언은 종말에 대한 모본이 되는 예언으로 많은 사람이 종말의 때와 결과에 대해 궁금해하다 잘못 해석하여 다른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때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봉함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종말에 다음과 같이 대비하라 하십니다.

- ① 정결해야 한다. ② 인내해야 한다. 끝까지 기다리라
③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네 길을 걸어라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단12:3)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별과 같이 어둠을 밝히고 방향을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2월 20일 주일

□ 믿음으로 전진하라 (Faith Forward)¹ : 믿음으로 전진하라 (히11:1~3, 6)

○ 시작하며

다니엘서를 통해 담대히 “함께 일어서라”라는 말씀을 통해 일어서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일어서 있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전진해야 합니다.

앞으로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는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많은 분야에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다리를 건널 때 다리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건너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오늘 말하는 믿음은 이런 차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임팔라는 높이뛰기와 멀리뛰기 선수입니다. 3m 이상 높이 뛰고 9~10m 정도 멀리 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물원 우리에 갇히면 1m 울타리를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임팔라는 자신이 뛰어서 떨어질 곳을 보지 못하면 절대로 뛰지 않는 습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보이는 것만 보고 행동하는 단적인 예입니다.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은 보이는 것이 절망이면 임팔라처럼 아무것도 못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세상의 어려움에 꼼짝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라고 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작자는 미상입니다. 히브리서의 1차 독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이 생존한 시대에 재림하실 것이라 믿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받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예수님은 오시지 않자 지쳤고 오히려 예수님 대신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열정이 변해 탈진이 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서를 그들에게 주셨고 읽게 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보석 같은 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들의 면면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전혀 거룩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창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2년 넘게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의 우리와 같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던 코로나 초기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봐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회복되기 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장과 11장이 처음부터 구분된 것은 아닙니다. 장·절 편성은 후대에 와서 구분한 것입니다. (Tip 참고)

(히브리서 10장 / 개역개정)

24.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전쟁과 같은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이 회복하는 과정을 관찰한 전문가들은 다음 세 가지 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 ①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 ②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다.
- ③ 믿음과 예배였습니다.

이럴 때 회복이 빨랐다고 하는데 히브리서 10장 24~25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 ① 서로 돌아보라
- ② 사랑과 선행을 격려
- ③ 모이기를 힘쓰라

☞ Tip 성경 정경화 및 장·절 편성 역사

◆ 성경 정경화 : 날권이던 성경 중에 정경으로 채택

- 구약 : 얍니아 종교회의(AD90년), 39권
- 신약 : 카르타고 종교회의(AD397년), 27권

❖ 사도성, 영감성, 보편성, 영적 내용성에 의해 결정했다 함

◆ 장과 절 구분 : 최초에는 구분이 없었으나 후에 분류됨

- 장 : 1228년 스위스 '스데반 랭론'이 분류

- 절 : 구약은 1448년 ‘나단’, 신약은 1551년 프랑스 인쇄업자 스테파누스
- 신구약 모두 장절 편성 출판은 1555년 스테파누스의 라틴역 불가타 성경

◆ 오늘날 성경 정절은 1560년 제네바 성경

- 권수 : 66권 (구약 39, 신약 27)
- 장수 : 1,189장 (구약 929, 신약 260)
- 절수 : 31,173절 (구약 24,214, 신약 7,959)

히브리서 첫 시간 믿음의 서론 부분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뢰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 : 다리가 무너지지 않을 것을 믿고 건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보상과 믿음의 원천 그리고 믿음의 증거에 대해 살펴봅니다.

○ 본 론

1. 하나님을 아는 것(경험하는 것)이 믿음의 상이다.

(히브리서 11장 / 개역개정)

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첫째, 믿음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 보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보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적 확신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아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의 최고 보상입니다. 단순히 존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존재를 아는 것은 사탄도 압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 개역개정)

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의 시작점은 천지창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천지창조에 대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기록하지 않고 왜 창조하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신 것은 인격적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아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어떤 것이 주워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범죄 이후 모세와 하나님과 대화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출33장)

◆ 하나님 :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 모세 :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으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사자를 먼저 보내 적을 진멸하데, 나는 가지 않겠다고 하자, 하나님이 가지지 않으면 우리도 보내지 마시라고 한 것입니다. 비록 가나안 땅을 통째로 주어도 하나님이 있으시지 않으면 필요 없다는 고백입니다.

1.1.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실재다.

(히브리서 11장 / 개역개정)

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고린도후서 4장 / 개역개정)

18.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실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감을 통해 아는 것에 익숙해 있어 오감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은 부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 감각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육감(믿음)으로 봐야 합니다. (고후4:18)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보

이지 않는 것이 존재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주를 보기 위해 허블망원경이 발명되기 전까지는 우주의 극히 일부만 봤으나 망원경이 개발된 후 광대한 우주를 볼 수 있지만, 아직도 보지 못하지만 존재하고 있는 우주 공간이 있음을 압니다.

둘째, 눈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눈은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실체가 존재함을 알고 있습니다. 수신기와 화면만 있으면 수많은 채널의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도단 성에서 적에게 갇혀 있던 엘리사를 보고 그 사환이 절망하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6장 / 개역개정)

17.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돌렸더라

2.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의 원천이다.

(히브리서 11장 / 개역개정)

3.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10장 / 개역개정)

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둘째,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가입니다.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생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표적을 보여 주면 믿겠다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말하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공급 받는 기적을 보면서도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습니다.

예수님 때 수많은 기적을 봤고 체험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 외쳤습니다.

기적은 믿음을 만들어 내지 못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원천입니다.

2.1.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믿음은 성장한다.

따라서 믿음의 근원은 기적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채울 때 믿음은 성장합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채우지 못한 것은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 Tip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

◆ 로고스 :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물속 물)

◆ 레마 :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두레박으로 뜬 물) 로고스 말씀을 듣고 읽지만, 특정 말씀이 특정 사람에게 특별한 영감을 줍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레마”라 합니다.

3. 순종은 믿음의 증거다.

(에베소서 2장 / 개역개정)

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셋째, 순종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위 말씀에서 세 가지 단어를 살펴봅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것은 우리의 행위로 인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선한 일을 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믿음의 선조들은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순종을 통해 믿음의 삶을 산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고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 개역개정)

18.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19.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20. 아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 믿음은 순종할 때 진짜 믿음이 됩니다.

◆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앞을 보여 주지 않으시고 그냥 예수님을 믿고 한 걸음씩 따라오라 하십니다.

믿음으로 윤병권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 결 론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보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고 성장합니다.

세 번째 순종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을 설명하기보다 순종의 삶을 산 선조들의 삶을 통해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씩 따라 살아야 합니다.

2월 27일 주일

□ 믿음으로 전진하라 (Faith Forward)2 : 믿음이 없이는 (히11:4~6)

○ 시작하며

기독교 성도들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한 분야에 지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명예의 전당에 올리고 그 업적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그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기를 바라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올리는 것입니다.

믿음에 전당에는 하나님께서 올려 주셔야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16명의 이름이 올려져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 모두 올려질 것입니다.

오늘은 16명 중 아벨과 에녹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 두 사람을 올린 것은 단순히 올린 것이 아니라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믿음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필수여야만 합니다.

○ 본 론

1.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

◆ 믿음으로 아벨은 바른 예배를 드렸고, 의로운 자의 증거를 얻었으며,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고 있다

(히브리서 11장 / 개역개정)

4.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가인과 아벨은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데 하나님 앞 예배의 장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서 쫓아냈지만, 이들을 만나기를 원하셨고 가인과 아

벨은 하나님 앞 예배의 자리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3~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와 받지 않으신 예배가 있습니다. 왜일까?

믿음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종교행사의 믿음이 있습니다. 같아 보일 뿐 전혀 다른 믿음입니다. 그 차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냐 아니냐입니다.

창세기 4장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배 장소와 시간 그리고 방법을 정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① 장소 : 같은 곳에 모여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예배했습니다.

② 시간 : '세월이 지난 후'라는 창세기의 표현은 정해진 시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③ 방법 :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와 시간에 예배를 드렸는데 방법이 다른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로마서 10장에 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진리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 개역개정)

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은 예배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속죄가 먼저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모두 제물을 드렸지만, 순서가 달랐기에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속죄가 없는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겼습니다.

☞ Tip : 아벨과 가인의 제사(예배)

◆ 아벨의 제사

어린양을 잡아 제물로 드린 예배를 드렸다. 어린양은 속죄를 의미합니다. 아담과 이브의 범죄로 가죽옷으로 그들을 덮어 주셨는데 이때 가죽옷을 얻기 위해 짐승의 희생이 필요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속죄의 희생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하며 아벨은 이처럼 속죄하는 믿음의 예배를 드렸다.

어린양의 속죄의 피는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고, 유월절을 통해 한 민족을 구원했으며,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벨의 예수님이 오실 것의 예표이다. 어린양은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다.

◆ 가인의 제사

가인은 농산물로 예배를 드렸다. 속죄가 없이 자신이 이룬 성취물로 드린 것이다. 이것은 종교 행위이다.

제물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곡물도 받으신다. 그러나 속죄가 없이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세리는 경건한 사람과 민족 반역자의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런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지 않으시고, 울며 통회 하는 세리의 기도는 받으셨다. 속죄가 없이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

가인은 결국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만다. 가인은 종교인의 마음이 있었고 그 속에 악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다. 살인을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다. 그래도 하나님은 가인이 돌아올 것을 바라고 기회를 주었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2.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

◆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히브리서 11장 / 개역개정)

5.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앞에서 살펴본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에녹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두 사람 (에녹, 엘리야) 중 한 사람입니다.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아들 므두셀라를 낳은 후부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자녀들에게 좋은 씨앗을 뿌렸을 것입니다. 에녹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 Tip : 므두셀라 (창5:21~27)

므두셀라는 에녹이 65세에 난 아들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다. 므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인데 실제로 그가 죽은 후 노아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므두셀라는 969세를 살다가 노아 홍수가 있는 그해에 사망했다.

므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고, 노아 600세 때 홍수가 났으므로 그 이름의 뜻대로 므두셀라가 죽고 홍수 심판이 난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라, 임재를 경험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고 싶어 하십니다.

(미가 6장 / 개역개정)

8.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함께 행하시는 것이고,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행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① 뜻이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아모스 3장 / 개역개정)

3.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②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교감을 나누어야 합니다.

③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함께 메지 말아야 합니다.

(유다서 1장 / 개역개정)

14. 아담의 칠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15. 이는 못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창세기에 두 명의 에녹이 나옵니다. 한 명은 아담의 칠대 손이고, 하나는 가인의 아들 에녹입니다.

가인은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 성(창4:17)이라 하였습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와 구별되는 아담의 칠대 손 에녹은 예수님이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아들 에녹이 아니라 아담의 칠대 손 에녹 편에 서야 합니다.

○ 결 론

믿음의 선조 두 분 아벨과 에녹을 통해 믿음의 삶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예배)를 지내 하나님이 받으셨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 하나님께로 끌어 올려서 갔습니다. 모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며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믿음이 없으면 동행할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 개역개정)

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께 끌어 올려 가야 합니다.

3월 6일 주일

□ 믿음으로 전진하라(Faith Forward)3 : 믿음으로 순종하라(히11:7)

○ 시작하며

☞ Tip 다슈라트 만지(마운틴 맨) 예화 (1934년 ~ 2007년)

인도 “다슈라트 만지”는 영화 마운틴 맨의 실제 주인공으로 22년간 망치와 정을 가지고 산에 길을 낸 사람이다.

그는 산에서 머리를 다친 아내가 병원에 가려면 88km를 돌아가야 해서 가지 못하고 아내가 죽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그 바위산에 길을 내기로 하고 22년간 길을 냈다.

사람들은 그 일을 시작할 때 미쳤다고 비웃었지만, 그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고 22년 만에 총길이 915m, 평균 너비 2~3m, 최고 너비 9m의 산악길을 완성했다. 그 결과 88km를 돌아가지 않고 20분 만에 가게 되었다.

사람들은 영화 마운틴 맨의 실제 주인공인 다슈라트 만지 같은 사람을 불굴 의지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도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힘들고 앞이 캄캄하더라도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은 창세기 6장과 7장의 뜻을 모두 담아 한 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창세기 내용도 알고 예수님도 믿는 히브리서 사람들이 흔들리고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노아입니다.

노아는 무려 120년을 묵묵히 걸어갔던,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평생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 본 론 : 믿음으로(By Faith)노아는

(히브리서 11장 / 개역개정)

7. 믿음으로 (by faith)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

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by faith)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by faith)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7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믿음으로’ ‘by faith’라는 표현이 세 번 나옵니다. 세 가지는 “믿음으로 순종했다.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했다(의를 전파했다).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입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1. 순종했다.

첫째, 믿음으로 순종했다 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에녹처럼 그리고 아벨처럼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는 아벨과 에녹의 신앙 유산을 물려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행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 개역개정)

7.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 개역개정)

18.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영화 인디애나 존스의 한 장면, 절벽에 봉착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말을 믿고 절벽을 향해 발을 내디딜 때 다리가 나타났던 것처럼...

(창세기 6장 / 개역개정)

13.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4.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창세기 6장 / 개역개정)

22.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사실 노아는 전혀 경험해 보지 않은 이해되

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비, 홍수, 방주 이런 말들은 노아의 시대에는 없던 것들이어서 이 말의 뜻이 무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노아 홍수는 지금 우리가 겪는 홍수가 아닙니다. 궁창의 물이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이해하고 믿겠다 하면 전진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전진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야 합니다.

방주를 “역청으로 바르라”라는 말은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인데 여기서 물이 들어오면 방주의 침몰 즉,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죽음이 들어 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청은 속죄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노아 방주의 비율은 최적의 비율이라고 합니다.(Tip 참고)

노아는 120년이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믿는데 그치지 않고 믿음대로 행했습니다.

믿음과 행함의 뚝단배의 노 예화가 있습니다. 둘 다 필요하고 함께 저어야 전진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믿음이 있었고, 믿음대로 향했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 Tip 노아방주

참고로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는 기록은 없다. 창세기 6장 3절에서 “그들의 날은 120년 되리라”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노아가 자녀를 낳기 이전이고, 세 아들을 낳고 며느리를 얻은 후 방주를 만들라고 했다. 그러니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것은 아닌 게 분명하다.

노아 480세 (추정) “120년 계시”

500세 이후에 자녀를 낳음

500+@ (추정) 방주 제작 지시

600세 때 노아 홍수

노아 방주의 크기는 길이 135m, 너비 22.5m, 높이 13.5m 정도로 길이와 너비와 높이의 비율이 10 : 1.6 : 1이라 한다. 이는 가장 안전성이 뛰어난 선박 비율이라고 한다.

☞ Tip 궁창 위의 물(창조과학회 참고)

창조 둘째 날 궁창(하늘)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셨는데 아래 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이고 궁창 위의 물은 하늘 위의 물로 지금은 없다. 노아 홍수 때 쏟아져 내렸기 때문이다. 죠셉 딜로우 박사는 그 두께가 12m 정도로 온 지구를 덮고 있었고 그 정도면 40일 정도 내릴 수 있었다고 말한다.

궁창 위의 물은 태양의 자외선을 완벽하게 차단하여 홍수 전에는 인간 수명이 900세까지 길었지만, 홍수 이후는 궁창 위의 물이 사라져 인간의 수명이 현저하게 단축되었다.

2. 세상을 정죄(의를 전파)했다.

(창세기 6장 / 개역개정)

9.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베드로후서 2장 / 개역개정)

5.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둘째,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했다. 노아는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 방주를 짓는 노아를 비웃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죄하기 전 노아는

2.1. 첫째,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 사람이었다. 노아는 세상과 달랐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과는 근본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주신 것은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사람이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 개역개정)

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2.2. 둘째,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면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의를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롭게 살면서 의를 전했지만 한 사람도 듣지 않았다. 전도했는데 듣

지 않을 때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묵묵히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때에 거두실 것입니다.

우리는 방주를 만들 필요는 없다. 이미 방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방주는 예수님이다. 우리는 방주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

(베드로후서 3장 / 개역개정)

9.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3.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로마서 5장 / 개역개정)

17.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셋째, 믿음으로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를 선물로 받은 홍수 이후 노아의 삶은 완벽한 삶보다 실망스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포도주에 취해 실수하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게 됩니다.

(왜 함이 잘못했는데 함의 아들을 저주했는지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다.)

우리는 끝까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 결 론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고, 캄캄한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노아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방주에서 나오라 하실 것입니다.

3월 20일 주일

□ 주의 옷자락 만지며 (막5:25~34) <곽현우 목사, 1부예배>

○ 본문 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과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1. 절망적인 상황

이 여인은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의사의 진료를 받았지만, 병은 더 심해져 갔고, 재산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더 힘든 것은 유출병은 부정한 병으로 여겨 유대 공동체에서는 정상적인 사회 활동할 수 없었습니다.

병을 앓는 사람이 접촉한 물건도 부정하게 되어 물로 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로 종교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자체가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2. 소문을 듣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신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기대한 것은 구원이었습니다. 구원이라는 헬라어는 죄악으로부터의 구원 즉 영적인 구원과 병 고침 병의 회복 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구하였던 구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였을까?

이 여인이 구한 것은 병 고침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3.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다.

예수님 옷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이 여인의 믿음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회당장 야히로의 사람들의 반응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회당장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말씀에 비웃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 옷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믿음, 순전하고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결국 병이 나았습니다.

열두 해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의 상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봅시다.

○ 본 론

1.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어떠한 믿음을 우리에게서 원하시는가?

이 여인의 행동과 예수님의 질문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여인은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결과는 병도 고치고 평안함도 얻었습니다.

다음 예수님의 반응과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았습니다. 단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 능력이 나간 줄 알았습니다. 아마 기록에는 없지만,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 유출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과 접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진 여인에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었을 때 시큰둥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옷을 만지는 것은 그 옷 입은 사람의 권능과 일치한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이 여인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옷자락만 만지고 몰래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녀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와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요술 지니 램프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은 그러한 목적으로 창조되었지만, 아담의 죄로 인해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 본 믿음이란 첫째, 예수님의 권능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으며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소망이 있음을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다.

둘째, 예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하고 예배함으로 그 발 앞에 엎드리며 주님과 그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질병의 치유는 구원의 표적이고 동시에 구원의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이면서 장차 재림하실 때 완전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 예고편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이고 회복이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릴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큰 것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맛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즉 병 고침은 이러한 죄로 임한 소망 없는 우리가 완전히 회복될 것을 잠시 보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부터 3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9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 결 론

믿음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3월 27일 주일

□ 믿음으로 전진하라(Faith Forward)4 : 믿음으로 행동하라 (히11 : 8~12)

○ 시작하며

사람이 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삶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구약시대에 믿음으로 살았던 삶이지만, 신약은 다시 한번 이들의 향기를 우리에게 전하며 우리에게 그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들의 삶을 살펴보는 것은 그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원리와 방법을 찾으며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아브라함은 믿음의 슈퍼스타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갈라디아서 참조)

(갈라디아서 3장 / 개역개정)

6.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7.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모습을 어떻게 순종했는가 그 믿음의 모습을 배울 것인가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 본 론

1. 떠나라

(히브리서 11장 / 개역개정)

8.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첫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떠나라는 말씀은 하란에서 하신 것으로 나오지만, 사도행전 7장을 보면 하란에 있기 전 갈대아 우르에서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라크 지역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우르를 떠날 때 65세쯤이었고 하란에서 10년쯤 머물렀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대단히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게 하신 이유는 창세기 11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①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본주의 사상이 만연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탑을 쌓아 하나님에게까지 높아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곳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해서 그의 후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도록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유리한 조건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② 갈대아 우르는 발전된 도시였다.

수학과 천문학과 상업이 발전한 도시로 인구는 약 25만 명 정도였고, 맥주를 발견하여 마셨고, 벽돌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세상 물질문명과 문화가 앞서가던 도시로 사람들이 살기를 원했던 도시였기에 그런 환경에서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것입니다. 당시 우르 사람들은 우르 이외의 지역은 야만의 땅이라 생각했기에 문명의 땅에서 야만의 땅으로 가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신이 따로 있는 곳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서 택하여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취할래 하나님을 취할래 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문명이 발전하고 좋아도 죄악이 있는 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배척하는 한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르를 떠나게 하신 이유입니다.

(이사야 51장 1절 / 현대인 성경)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의를 추구하며 나 여호와를 찾는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를 떠난 반석과 너희를 파낸 채석장을 생각해 보아라.

LRO

이처럼 세상으로부터 구별시켰다.

여기서 세상은 물리적 공간의 세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철학적 의미

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스페어 타이어처럼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만 도와주고 평상시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존재로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신 것은 지리적 물리적으로 떠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떠나라는 그 영역들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① 우리들의 잘못된 습관을 떠나라 하십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방해하는 습관, 뒤로 미루는 습관,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습관 등입니다.

② 다음은 관계를 떠나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세상적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친척들이 살고 있던 고향을 떠나야 했다.

③ 다음은 감정적인 영역으로 과거의 실패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과거의 아픔들, 상처들,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들, 쓴 뿌리들

④ 물질적 가치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라 하시면서 목적지를 한꺼번에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한 걸음씩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과정 과정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는 GPS가 있어 네비게이션을 사용하여 목적지를 안내하지만, 성도에게는 또 다른 GPS가 있습니다.

☞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인공위성과 통신하며 위치를 파악하는 시스템

☞ GPS(GOD positioning system)

믿는 자의 GPS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다.

(시편 37편 / 개역개정)

23.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은 자기를 기뻐하는 자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목적지를 모르면 절대 움직일 수 없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발자국 내딛기를 원하십니다. 배가 움직여야 키가 방향을 조정할 수 있고, 차가 움직여야 핸들이 차를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멈추어 있으면 절대로 방향

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얻는 첫 번째 원리는 떠나는 것 즉 순종입니다.

2. 살라

(히브리서 11장 / 개역개정)

9.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1.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12.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둘째, 살라,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르 - 하란 -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환상을 가지고 왔지만, 텐트에서 거류민처럼 살았습니다. 이방인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실망합니다. 심지어 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것은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기다리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에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에게 주신 것은 100세에 달랑 이삭 하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준비시키는 일을 동시에 하십니다. 그사이에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75세 때 약속을 하셨는데 100세 때 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기다리며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나그네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위를 보라

(히브리서 11장 / 개역개정)

10.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세 번째는 위를 보라입니다.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시선은 하늘나라를 보고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모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삶은 지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나라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 개역개정)

4. 공활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는 말씀은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구를 우주에서 보면 작은 구슬처럼 보일 것입니다. 산도 골짜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하늘의 관점으로 본다면 괴로움은 괴로움이 아니고 슬픔도 슬픔이 아닐 것입니다.

하늘의 관점으로 삶을 봐야 합니다.

○ 결 론 : 예배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한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삶 그리고 위를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예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예배했고 믿음이 견고해졌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 도착했는데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 그로부터 400여년이 흐른 후 출애굽하여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민13:32~33)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때 아브라함은 예배했습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믿습니다. 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로마서 4장 / 개역개정)

20.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창세기 12장 / 개역개정)

6.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 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7.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4월 3일 주일

□ 예수님과 만남1 : 예수님과 사탄의 만남 (눅4 : 1~13)

○ 시작하며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라’ 시리즈를 잠시 중단하고 ‘예수님과 만남’ 시리즈를 8회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는 40일 전부터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우리 합동 교단에서는 사순절과 대강절을 공식 절기로 지키지 않고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3대 절기만을 지킨다.

☞ Tip 사순절과 대강절

◆사순절

부활 주일 전 40일 동안의 기간. 이 기간에 교인들은 광야에서 금식하고 시험 받은 그리스도의 수난을 되살리기 위하여 단식과 속죄를 한다.

◆대강절

성탄절 이전 4주간 동안의 기간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가리킨다. 영어로는 'Advent'라 하는데 이는 '~을 향하여 접근한다'는 뜻의 라틴어 '아드벤투스'(adventus)에서 유래한 말이다. 결국, 대강절은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를 일컫는다. 일명 '대림절', '강림절'이라고도 한다.

예수님은 40일 금식기도를 하시고 첫 번째 만남이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인간의 기대수명이 83.5세인데 인터넷을 보는 시간이 34년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인터넷의 정보력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대단합니다. 인터넷은 이처럼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영적인 것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취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인터넷은 이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적전투를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을 가로막고 있는 것(인터넷 등)으로부터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시험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반드시 우리도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를 알려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탄의 만남을 살펴봅니다.

○ 본 론

1. 시험의 배경

1.1. 세례

예수님은 시험받으시기 직전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세례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최고의 봉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최고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져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형통했던 자리에서 시험의 자리, 고난의 자리로 떨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1.2. 족보

누가복음 3장에 갑자기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족보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로 이어지는 기술이고, 누가복음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아담,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여기에 아담이 포함된 것은 예수님이 받으실 시험과 아담이 받은 시험을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이 여겨 시험에 실패하여 원죄가 들어왔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살펴볼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1.3. 시험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시험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시험처럼 내 삶이 어려움을 당할 때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 ① 나는 우연히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 ② 나는 혼자가 아니다.
- ③ 나는 영원히 거기에 있지 않을 것이다.

2. 시험

2.1.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

(누가복음 4장 / 개역개정)

3.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게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사탄의 말을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인데 왜 이렇게 40일간이나 굶고 고생하느냐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럴듯한 말입니다.

이와 똑같은 시험을 에덴동산에서 이브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는데 선악과만 먹지 못 하게 할 이유가 없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것이다. 그러니 “따먹으라”라고 한 것입니다.

사탄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게 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마4:4)라고 하시며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반면 이브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이들은 떡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없었고, 순종이 없었기에 실패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 개역개정)

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2.2. 하나님의 계획을 불신

(누가복음 4장 / 개역개정)

5.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6.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 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7.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8.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계획을 불신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사탄의 말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이 나에게 준 것으로 내 것인데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예수님)에게 주겠다.” 그러니 절하라 나를 경배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이 말은 완전 거짓말입니다. 물론 사탄은 성경을 인용해서 말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사탄은 성경을 매우 잘 압니다.

다니엘 7장을 보면 메시아가 오면 권세와 영광을 주고 영원한 권세로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데 지금 그런 나라가 있느냐? 그러니 내가 줄게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영원함을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그런 것이 없고 자기에게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주어진 권세는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악한 짓을 하는 것만 주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일에는 하나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의도는 예수님께 앞으로 3년간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질 터인데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내가 주는 영광을 지금 얻고 십자가를 지지 마라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앞에 영광이 있을 것인데 그 전에 고난이 있을 것이고, 높임을 받을 것인데 그 전에 겸손을 보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또 신명기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불신하면 안 됩니다. 삶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는 과정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 7장 / 개역개정)

13.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14.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2.3.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누가복음 4장 / 개역개정)

9.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10.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11.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1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시편 91편 9~12절의 말씀을 왜곡해서 시험했습니다. 말씀을 거두절미하여 전체 맥락이 없이 부분만을 발췌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죽지 않게 할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광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또 신명기의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를 이용하여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종합해 보면

- ◆ 사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피하게 하기 위해 모든 짓을 합니다.
- ◆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고난을 피하게 하기 위해 모든 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거부하는 세력입니다.

(누가복음 9장 / 개역개정)

23.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3. 사탄을 이기는 무기

사탄을 이기는 무기에 대해 살펴보입니다.

3.1. 저항하라

(야고보서 4장 / 개역개정)

7.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 첫째, 피하지 말고 대적하라 저항하라 싸우라 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피할 것입니다.

3.2.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 개역개정)

11.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 그리고 또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가 시험 받으실 것을 아시고 말씀만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3.3. 하나님(성령)의 능력(기도)

(누가복음 4장 / 개역개정)

1.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성령에게 이 끌리시며

14.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셋째,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은 기도할 때 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결 론

예수님과 만남 첫 번째로 예수님과 사탄의 만남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만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불신하게 하는 시험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험에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집요합니다. 예수님을 위한척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피하게 합니다. 또 우리를 위한척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고난을 피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탄을 이기는 무기는 대적하여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데 기도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4월 10일 주일

□ 예수님과 만남2 : 예수님과 예루살렘 군중들의 만남 (눅19 : 28~44)

○ 시작하며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한 주가 시작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고난주간, 십자가에서 죽음, 부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베다니에서 시작합니다. 베다니는 아주 작은 동네였지만, 그곳에서 시작한 것은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랑하는 나사로와 그 동생들의 집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의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동쪽 문을 통해 입성하시게 됩니다.

반면 해롯, 빌라도 등 세상 권력자들 왕들과 총독들은 서쪽 문을 통해 입성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군중들의 만남을 통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 Tip 종려주일

예수님 부활 바로 전 주일로 수난 전 예루살렘에 들어온 예수님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한 날이다.

☞ Tip 베다니 (그림 참조)

예루살렘에서 오리(2~3km) 거리(요11:18) 나사로와 그의 두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던 동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요11:43~44)

요단강 건너편까지 약60km(걸어서 이틀길)



○ 본 론

1. 왕(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눅19:28~40)

1.1. 예언의 성취

메시아는 동문으로 입성하시는데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에스겔과 스가랴서에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바로 예수님께서서 입성하신 그 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에스겔 43장 / 개역개정)

4. 여호와와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스가랴 9장 / 개역개정)

9.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BC 575년경 스가랴 선자자는 왕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불품없는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었습니다.

왕이라면 멋진 백마를 타고 신하들을 거느리고 당당하고 위엄있게 올 것이라 기대를 했습니다. 개선장군 모습처럼

그런데 예언의 모습 그대로 또 그 시간에 나귀를 타고 동문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막상 왕이 온다 해서 환호성을 지르긴 했는데 나귀를 타고 그것도 비단도 아니고 나뭇가지를 바닥에 깔고 환영하는 모습이 너무 우스워 보여 로마 병사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행진은 승리의 행진이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기에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나는 왕이라 하십니다.

1.2. 군중들의 환호와 비판

1.2.1. 어떤 것도 나의 찬양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본문 38절을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환호한 것이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였습니다.

시리아의 통치를 받고 있던 BC167년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이처럼 환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정치적 힘이 있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때는 시리아의 압제, 예수님 당시는 로마의 압제하에서 해방을 시켜 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 마카비 혁명

마카비 혁명이란 BC 167년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시리아에 대항하여 일어난 사건이다.

시리아 정부가 파견한 제의 관리를 위하여 이교도 제단에 제물을 드린 유대인 한 명을 살해하고 급기야 재의 관리까지 살해하면서 시작되었다.

BC164년 12월 25일 예루살렘에서 셀레우코스 왕조를 몰아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날을 “하누카”라는 봉헌절 축제로 드리고 있다. -끝-

당시 상황은 두 개의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든 무리 들이고, 또 다른 무리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종교적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무리를 책망하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40절에서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찬양할 것인가? 방해할 것인가?

찬양은 우리 삶 자체여야 합니다.

찬양은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환경보다 중요한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찬양을 선택해야 합니다.

1.2.2. 자신이 중요하게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사용하신다.

예수님은 멋진 백마가 아니라 나귀를 사용하셨습니다. 나귀는 말에 비해 모

습도 우는 소리도 정말 비교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가 쓰시면 백마를 넘어 벤츠가 됩니다. 아무리 보잘 것 없어도 귀한 사람이 쓰면 귀하게 대우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비록 나귀같은 존재일지라도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 귀한 존재가 됩니다.

<교구장이 추가한 글> 얼마 전 농구 황제가 신었던 헌 농구화가 상상을 초월한 가격에 경매 (약17억원)되었고, 나폴레옹의 모자는 한국 모기업 회장이 무려 26억원에 낙찰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다.

그렇다 유명인사가 사용한 소품들이 비싼 가격에 경매되는 것은 낡은 소품이지만 그걸 사용한 사람이 유명하기 때문이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2. 왕(예수님)의 눈물 (눅19:41~44)

예수님은 갑자기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그것도 큰 소리로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한번 우셨고, 또 지금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신 것인데 처음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다면 예루살렘 성을 보고는 소리내어 크게 우신 것입니다.

그럼 우신 이유는 뭘까?

2.1. 군중들의 얇은 믿음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첫째 군중들의 얇은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그토록 환호했던 군중들은 불과 4일 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우신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얇은 이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2.2. 군중들의 영적 무지

두 번째 이유는 군중들의 영적무지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적무지란?

2.2.1. 주님께 굴복되기 전에는 참된 평화를 알지 못한다.

(누가복음 19장 / 개역개정)

44.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군중들은 평화가 어디서 오는지를 몰랐습니다. 보살핌 받는 날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몰랐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한다면서 전쟁을 합니다.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힘으로 평화를 가져오지 못함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참된 평화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 개역개정)

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2.2.2. 영접할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예수님은 이제는 다 보여 주었으니 너희들이 선택할 시간이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우리에게 선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알았고 그래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몰라 보는 영적무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2.2.3. 주님을 울게 한 것이 오늘 우리를 울게 하라

주님을 몰라 보기에 멸망 당할 그들을 보고 우셨습니다.

○ 결 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는 군중들과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도 나의 찬양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찬양할 것인가 찬양을 방해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찬양을 선택하여 삶이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중요하게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사용하시면 나귀처럼 귀하게 쓰임 받게 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주어진 그대로 주님께 드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군중들의 얕은 믿음과 영적무지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영적무지는 참된 평화가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데 선지자 정도로 본 것입니다.

4월 17일 주일

□ 예수님과 만남8 : 예수님과 엠마오 제자들의 만남 (눅24 : 13~35)

○ 시작하며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만남 여덟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난 사람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부활하신 신분으로 누구를 먼저 만날 것인가 매우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된 사람이 오늘 두 사람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우리와 같은 매우 보통 사람들로 이들을 만나 주신 것이 은혜가 됩니다. 바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엠마오 제자들 마음 상태에 따라 ⇨ 가게 되는 길과 ⇨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해결받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엠마오 제자들	길	부활하신 예수님
부서진 마음	절망의 길	그들과 동행하심
가려진 마음	진리를 향한 길	눈을 열어주심
뜨거운 마음	기쁨의 길	예수님을 증거

○ 본 론

1. 부서진 마음 ⇨ 절망의 길 ⇨ 그들과 동행하심

1.1. 엠마오 제자들은 부서지고 깨진 마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 개역개정)

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본문 17절을 보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서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그들의 꿈이었

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꿈이 깨어져 버리고 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우리들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서진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고통은 결코 면역되지 않습니다.

1.2. 절망의 길

(누가복음 24장 / 개역개정)

21.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부서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절망의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속량해 줄 것으로 믿었는데 과거가 되어버렸고, “속량을 바랐노라”라고 지금은 바랄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자신이 죽으심과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이미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3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절망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내하지 못합니다. 소망을 쉽게 접어 버립니다.

1.3.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심

부활하신 예수님은 절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을 만나 주셨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일상에 평범하게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라”하고 질책하지 않으시고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기를 원하시고, 이야기하기를 원하시고, 내 삶을 주님과 공유하며 나누며 우리 주님께 물어보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찬송가 442장 2절 가사처럼>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2. 가려진 마음 ⇨ 진리를 향한 길 ⇨ 눈을 열어 주심

2.1. 가려진 마음

(누가복음 24장 / 개역개정)

25.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들의 눈이 가려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맹인처럼...아무리 말해도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2.2. 진리를 향한 길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 때 진리를 향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향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 개역개정)

26.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먼저 십자가의 의미를 말씀해 주십니다. 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했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은 십자가가 실패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죽음이 없는 영원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진리이고 고린도후서 5장21절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 개역개정)

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2.3. 부활하신 예수님은 눈을 열어주심

성경의 모든 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 4복음서 등은 오신 예수님, 그 이후에 서신서나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 개역개정)

27.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29.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30.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27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의 자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이처럼 눈이 열리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 손님이신데 30절을 보면 마치 주인처럼 떡을 떼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셔야 함을 말합니다. 여기서 떡을 떼어 주신다는 것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할 때 눈이 밝아졌습니다.

말씀과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3. 뜨거운 마음 ⇔ 기쁨의 길 ⇔ 예수님을 증거

3.1. 뜨거운 마음

(누가복음 24장 / 개역개정)

32.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 기쁨의 길

(누가복음 24장 / 개역개정)

33. 곧 그 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34.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들은 곧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약 12km 정도 되는데 예루살렘이 높기 때문에 경사가 심합니다.

절망의 내리막길을 터덜터덜 왔지만, 기쁨의 오르막길은 걸어 즉시 돌아간 것입니다. 단숨에 뛰어서 기쁨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사셨네를 기쁨으로 외쳤습니다.

3.3. 예수님을 증거

(누가복음 24장 / 개역개정)

35.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들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 결 론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부서진 마음으로 절망의 길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됩니다.

주님을 만나 동행하면 가려진 마음이 진리의 길을 향하게 되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질 것이고 기쁨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가 필요해>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이 들으시네

그들은(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황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4월 24일 주일

□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남1 :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요20:11~18)

○ 시작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 막달라 마리아를 살펴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와 만나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만남은 악연이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축복이 되는 적절한 만남은 그 동기가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지니스로 만나기도 합니다. 취미 생활로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의 중심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삼각관계로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철저하게 일대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천국은 단체로 갈 수 없습니다.

○ 본 론

1. 불같이 주님을 사랑한 사람 마리아

예수님과 관계는 오직 사랑의 관계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를 부르심은 오직 사랑의 아니면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성공한 사람 중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부활하신 후 제일 먼저 만나 주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불같이 주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는 일곱 귀신이 들렸던 완전 망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를 예수님이 고쳐 주셨고 소망과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예수님만 사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지만, 그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지만, 그녀는 남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 개역개정)

61.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옥석이 가려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소망이 사라진 상황에서 무덤 앞에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그곳에 계속 있을 수 없어 내려왔다가 안식일 첫날 다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 두 제자는 돌아갔지만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불같이 사랑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2.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는 무덤 앞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어찌하여 우느냐?” 묻습니다. 이에 마리아는 “내 주님을 옮겨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입니다.”라고 하며 돌아보니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때까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찌하여 우느냐?” 하십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후 첫 번째로 하신 매우 귀한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해야 할일이 많았는데 마리아에게 오셔서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속에 들어 오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은 눈물의 연속이고 눈물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왜 우느냐?” 하십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를 작사한 스페포드를 만나 주셨고, 평안한 마음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실 겁니다.

(시편 30편 / 개역개정)

5.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 Tip 스페포드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스페포드는 미국 시카고 변호사이자 의과대학 교수였다.

1873년 1월 15일 부인과 네 딸이 영국 여행을 위해 여객선을 타고 가던 중 대서양을 순항하던 영국 범선과 충돌하여 226명의 승객이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의식을 잃은 부인은 구사일생으로 구조대원에게 구조되었지만 네 딸은 모두 사망하고 말았다.

스패포드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급히 배편으로 영국으로 가던 중 선장이 “지금 이 배는 아이들이 침몰한 지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라고 알려 주자 스패포드는 선실에서 밤새 통곡하며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밤이 지나고 동이 뜰 때 주님이 주신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그 마음속에 임하였다고 고백했다.

이때 작사한 찬송가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다.

3. 누구를 찾느냐?

(잠언 14장 / 개역개정)

12.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예수님은 또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아시면서 물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또 권력을 찾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영원한 것들이 아니고 결코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바른길이다. 진리라고 생각하고 가지만 사망의 길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 개역개정)

42.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가졌습니다. 오직 한 가지가 필요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4. 마리아야 : 랍오니여

예수님은 더 이상 자신을 감추지 않으시고 “마리아야”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리아에 대해 아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도 모두 알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함께 계신 주님 인격적으로 일대일로 만나야 합니다. 천국은 단체로 누구로 인하여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한

사람씩 개인의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름에 응답해야 합니다. 마리아가 “랍오니여”라고 한 것처럼 “나의 주님이시여”라고 응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마리아처럼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 개역개정)

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18.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예수님은 “나를 붙들지 말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나는 이제 올라간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사명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나를 붙들지 말고 가서 그 사명을 완수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로서 마리아는 최초의 선교사가 됩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직접 보았노라고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 “어찌하여 우느냐?”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돌봐 주시는 음성입니다.

두 번째 말씀 “누구를 찾는냐?” 우리를 안다는 음성입니다.

세 번째 말씀 “나를 붙들지 말라”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음성입니다.

마리아를 말할 때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① 전에 일곱 귀신 들렸던 마리아라고 한다. 이 표현은 사실 때려 버리고 싶은 수식어일 수 있는데 사용한 것은 귀신을 쫓아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② 또 다른 하나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이다. 이 표현은 예수님 때문에 우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고 예수님을 위해 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 결 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만나 주신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온 인류 구원이라는 위대하고 막중한 주님의 사역에 앞서 누구를 만나는 가는 매우 큰 뜻이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불같이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왜 우느냐?” 시며 위로하시고 돌봐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찾느냐? 시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주님을 찾아야 함을 말씀해 주시는 음성입니다.

세 번째는 “나를 붙들지 말라”는 나는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새로운 사명이 있다. 가서 나를 본 것을 증언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난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5월 1일 주일

□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남2 :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요20:24~31)

○ 시작하며

모든 것이 온통 변화된 코로나 상황에서 유일하게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온통 나쁜 소식이지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 부활은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핵심 사역이신데 성경 기록은 의외로 너무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과정 기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만난 사람들만 변화될 수 있었기에 부활하신 사건은 아주 짧게 기록하면서 만난 이야기들, 즉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만난 이야기들은 끊임없이 계속 강조하면서 길게 길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어져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을 살펴볼 텐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증언이 이어져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우리도 증인의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 본 론

1.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 개역개정)

19.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에 두 번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 문을 닫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자리에 오

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면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셨기에 문을 열 필요도 없이 그곳으로 들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유령이라고 놀라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 개역개정)

5.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의 평강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세상은 예수님 밖에서 평강을 추구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참 평강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나오는 평강이 참 평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평강을 말씀하시며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평강이 필요하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도마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요한복음 20장 / 개역개정)

24. 열두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는 첫 번째 모임에 없었습니다. 평강을 주신 그 자리에 없어 평강을 놓쳤습니다. 또 성령과 사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도마에게 예수님은 무덤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도마는 “함께 모여”라는 말씀을 놓쳤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 개역개정)

25.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시편 34편 / 개역개정)

3.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함께 해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온라인 예배는 코로나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그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함께 모이라고 말씀하시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함께 모이는 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3. 믿음 없는 자(아피스토스)가 되지 말고 믿는 자(피스토스)가 되라

3.1. 왜 의심하는가?

(요한복음 20장 / 개역개정)

25.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20장 25절은 도마의 말입니다. 이것이 의심입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 개역개정)

17. 예수를 뵈옵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의심이 올라오는 것은 어찌 당연합니다. 이러한 의심을 치유받는 곳은 교회여야 합니다.

의심하는 이유는 ① 이해할 수 없고 악인 잘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보면서 일어나는 대답할 수 없는 질문 때문입니다. ②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의심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지는 하늘나라입니다. 믿음은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또 일어나서 가야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3.2. 강한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의심을 통해서 성장하는 믿음이다

다른 제자들이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해도 도마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마의 별명은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합니다. 그러나 도마는 결코

의심이 많은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도마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고백할 정도였던 제자입니다.

도마는 굉장히 구도적이었고, 굉장히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로 결단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의심은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표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표시다”라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는 말했습니다.

4. 요한복음 20:26~28

(요한복음 20장 / 개역개정)

26.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이다

8일 후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오셨을 때 자리에 없어서 의심했던 도마가 제자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도마의 의심에 대해 누구도 예수님께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에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후 도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AD 72년경 순교했으면 도마를 담고자 많은 사람들이 토마스라는 이름이 많은 선교와 지역 그리고 사람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4.1.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에서 멀리 계시지 않다

(시편 23편 / 개역개정)

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탄은 인간의 의심을 활용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에서 결코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하게 하십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극복하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골짜기는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닙니다. 계속 지나가는 곳입니다. 걸어서 나와야 하는 곳입니다. 머물러서지 마십시오. 나올 수 있는 것은 주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의 자국을 지우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셨을까?

① 내가 너희들을 구하려고 이렇게 못 박혔다. 그래서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② 환난은 영광을 위함임을 보여 주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 개역개정)

17.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찬송가 456장 1절>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 결 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셔서 만난 사람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도마는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던 첫 번째 자리에 없어서 예수님에 대해 의심을 했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이에 도마는 예수님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도마의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린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한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통해서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사탄은 의심을 통해 우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에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의심의 골짜기는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닙니다. 머물러서지 마십시오. 나올 수 있는 것은 주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5월 8일 주일

□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남3 :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한 아침 식사 (요21:1~14)

○ 시작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세 번째 사람들은 디베랴 호수가에서 만난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21장은 뜬금없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요한복음 전체 구조상 난데없이 보이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요한 사도는 20장에서 요한복음의 복음적인 이야기들은 다 끝났습니다. 구원 사역이 다 끝났고, 완성되었으므로 기록 마무리하는 것처럼 마무리 인사를 했고 20장으로 마쳐도 전혀 이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21장이 필요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 20장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대로 마쳤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지 하는 궁금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21장은 부활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계속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장까지 베드로는 철저히 실패한 베드로만 나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였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어떻게 실패한 베드로가 변했을까? 이런 베드로와 베드로같이 실패한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 본 론

두 개의 삶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삶과 영적인 부활 신앙의 삶입니다. 이 두 개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만난 이후의 삶을 말합니다. 이 두 삶에 대해 살펴봅니다.

1. 육신적인 삶(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

1.1. 불순종

육신적인 삶은 불순종의 삶이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입니다. 본문 1절

을 보면 예수님이 “나타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보여 주지 않으시면 우리 만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제자들의 불순종이었을까? 이들이 지금 있는 디베랴 호수가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갈릴리로 가서 산에 있으셨는데 이들은 디베랴 호수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산과 호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실망하고 옛날 그들의 일, 즉 고기잡이로 돌아가 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고기를 잡는 것이 불순종이 아니라 실패와 절망에서 나오지 못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하며 예수님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간 것이 문제입니다.

1.2. 실패

불순종의 결과는 실패입니다. 주님을 떠난 삶은 실패입니다. 전직이 고기잡던 어부들이어서 가장 잘하는 것이 고기를 잡는 일인데 그들은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이 실패에 대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 개역개정)

10.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는 실패한 후 알게 되었다. 고난은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며 터를 견고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낙심할 때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뜯어내어 오직 예수님만 남게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요한복음 15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 개역개정)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따라서 우리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1.3. 예수님과 관계 멀어짐

(요한복음 21장 / 개역개정)

4.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불순종은 실패하게 되고 예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불과 90m 거리에서 봤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시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끝난다면 21장의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2.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남 부활 신앙의 삶

(요한복음 21장 / 개역개정)

5.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은 불순종하여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애들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지휘관이 연병장에 있는 병사들을 “제군들” 하며 부르는 것과 같은 단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르신 후 “고기가 있느냐” 즉 고기를 좀 잡았느냐 물으시고, 제자들은 “고기가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화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부족을 채워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비어 있음”의 고백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것을 가졌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실패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없다.”

☞ Tip “애들아”의 견해

“애들아”는 헬라어 ‘파이디아’는 ‘아이’를 뜻하는 ‘파이스’에서 유래되었는데 여러 견해가 있다고 한다.

“어 여보개들!” “젊은 이들! “제군들” 등 등 그러나 공통적인 견해는 친밀하고 애정이 담긴 부르심이라는 것이다. <만나 주석>

2.1. 순종

(요한복음 21장 / 개역개정)

6.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해되지 않고 평생 어부였던 이들에게 자존심 상한 말이었지만, 던졌습니다. 우리의 지각으로 이해되고,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맞는 말이라면 누구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해되지 않는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2.2. 성공

제자들의 순종은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말씀에 따라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들 수 없을 정도로 잡혔습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과 성공은 생각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또한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배 오른편, 항공모함도 아니고 작은 배의 왼편과 오른편의 차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배가 조금만 움직여도 왼쪽이었던 자리가 오른쪽이 될 것입니다.

나병에 걸려 찾아온 나만 장군에게 여단 강에 가서 7번 목욕하기 위해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 차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순종과 불순종이 가까운 거리에 있고 차이가 사소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 길이고 생명과 죽음의 길입니다.

2.3.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회복

(요한복음 21장 / 개역개정)

7.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겹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그때서야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먼저 알아본 사람은 요한이었지만, 먼저 행동한 사람은 또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이렇게 먼저 행동을 합니다.

<베드로의 행동 사례>

(마태복음 14장 / 개역개정)

28.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29.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베드로처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성장을 이룹니다. 예수님과 가까이하기 위해서는

- ① 말씀을 가까이해야 합니다.
- ②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 ③ 예배해야 합니다.
- ④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아침 식사가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21장 / 개역개정)

9.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9절에 의미 있는 세 단어가 나옵니다. 숯불, 생선, 떡입니다.

숯불(헬라어 ‘안드라키아’) 라는 단어는 성경에 두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과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두 곳 모두 베드로와 관련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숯불은 참으로 아픈 추억입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순간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숯불입니다.

숯불은 실패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는 절망과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생선과 떡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당연히 제자들이 잡은 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어 10절을 보면 예수님은 “잡은 것을 가져오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동참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11절에 153마리에는 중요한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나는 구세주다 (I am LORD)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12절은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 Tip 153의 의미에 대한 견해 <만나 주석 참고>

① 어거스틴(Augustine)은 율법을 상징하는 10을 구약으로, 성령을 상징하는 7을 신약으로 보고 이 둘을 합한 수인 17에 이르기까지 1부터 더해 나가면

(1+2+3+4+5 ... +17) 153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리고 그는 여기에 덧붙여서 이 153이라는 숫자는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를 입어 구원을 얻게 될 자들의 수를 가리킨다고 했다.

② 알렉산드리아의 시릴(Cyril of Alexandria)은 100을 이방인의 수로, 50을 유대인의 수로 그리고 3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수로 보는 해석을 제시했다. 이렇게 볼 때 $100+50+3=153$ 이라는 수가 도출되며 이것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삼위 일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됨을 가리킨다고 한다.

③ 고대의 동물학자들은 생선을 153종으로 분류했는데 본문의 이 숫자는 인류 전체의 인종(人種)을 상징 한다고 본다(Hieron).

④ 사도들에 ‘낙인’ 즉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본다(Barrett).

⑤ 단지 많은 수의 고기가 잡혀다는 것 그리고 153이라는 숫자는 다만 사실의 보도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본다(TYemple, Leski).

위에 열거한 학자들의 제 견해들은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을 뿐 그 이상의 확고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엄청나게 많은 물기가 잡혀 있었다는 사실이다(6절).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표현은 적어도 그 정도의 물고기가 잡혔다면 당연히 그물이 찢어졌어야 마땅했음을 암시한다(눅 5:6). 그럼에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면 그것 역시 이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한편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고는 것에 대해 학자들은 분리될 수 없는 교회의 통일성(unity)을 말해준다고 보기도 한다. 교회는 많고도 다양한 사람들로 채워지지만, 그 통일성이 보전되어 언제나 하나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 결 론

두 개의 삶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육신적인 삶은 불순종 ⇨ 실패 ⇨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삶으로 악순환이 계속되는 삶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부활 신앙의 삶은 순종 ⇨ 성공 ⇨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삶을 알았습니다.

차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느냐 아니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침을 먹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 나를 부인했느냐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과 아침 식사는 베드로의 이후 사역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 개역개정)

40.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41.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5월 15일 주일

□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남4 :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21:15~22)

○ 시작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의 만남입니다. 베드로는 후회 속에 살다 회복하여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말 중 가장 슬픈 말은 “~했었으면 좋았을걸”이라는 후회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후회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베드로는 누가복음 22장에 베드로의 후회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누가복음 22장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했을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의 후회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내가 너무 허풍을 떨었구나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과장해서 말했던 그것들이 후회되었을 것입니다.

겻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뜰에서 너무 빨리 성급하게 부인했던 것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너무 멀찍이 따랐습니다.

이런 것들이 후회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후회의 삶에 소망이 있느냐?

베드로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후회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은 가룟 유다는 목을 매어 자살했습니다. 그와 비슷한 상황에 베드로에게 얻은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 본 론

1. 후회에서 회복으로

1.1. 예수님의 기도

(누가복음 22장 / 개역개정)

31.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의 회복을 위해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하고 있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시몬 너를 위해 기도했다 하십니다. 시험을 없이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이기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은혜의 확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과 로마서 8장 34절에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7장 / 개역개정)

25.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로마서 8장 / 개역개정)

34.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1.2. 예수님의 이해

(누가복음 22장 / 개역개정)

34.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복되는데 돌아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실수를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이해하니 다시 돌아오라 하십니다.

1.3. 예수님의 관심

(마가복음 16장 / 개역개정)

6.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

나섰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7.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 하라 하는지라

“제자와 베드로에게” 말하라. 이 말은 후회에 쌓여 있는 베드로를 꼭 짚어서 말하라 하신 것입니다.

후회하고 절망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꼭 불러서 말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입니다. 제자와 (윤병권)에게 전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후회에서 회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2.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삶의 목적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삶의 목적 그 사명은 무엇인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되 충성스럽게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대화 속에서 한 가지는 질문을 통해 말씀하시고, 두 가지는 명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1. 사랑하라

(요한복음 21장 / 개역개정)

15.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호칭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불렀던 이름입니다.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베드로야 다시 시작하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부르시고 세 번이나 질문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장소는 숯불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두 개의 숯불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 집 뜰에서 숯불 후회의 숯불이고, 또 하나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회복의 숯불입니다.

헬라어 사랑이란 단어는 아가페와 필레오가 있습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완벽한 사랑이고, 필레오는 형제 우애 사랑같은 사랑이지만 아가페에는 미치지 못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물음에서는 아가페 사랑을 하느냐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필레오 사랑으로 대답하였습니다.

두 번째 물음에서도 아가페 사랑을 하느냐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필레오 사랑으로 대답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필레오 사랑을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사랑의 수준을 낮추시고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이때도 필레오였습니다. <그림 참조>

아가페와 필레오 사랑

즉,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신적으로 사랑하느냐?' '아가페하느냐'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아니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베드로는 '저는 신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헌신적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 형제로서는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예수님께서 두번째로 '네가 나를 신적으로 사랑하느냐? 헌신적으로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아닙니다. 저는 형제로서밖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눈높이 까지 내려오셔서 세번째로 질문하신다. '그렇다면 베드로야, 네가 나를 형제로서 사랑하느냐?' '필레오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고민하면서 '형제로서 사랑했다' 라고 설교한다.

<총신대 고병찬 교수 글>

회복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까지는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다 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거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했지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 개역개정)

8.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신앙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마태복음 22장 / 개역개정)

3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사랑하는 것은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진주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진주를 얻기 위해 가진 것을 다 팔아 진주를 샀습니다. 우리에게 진주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주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진주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진주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2.2. 섬기라

(마태복음 22장 / 개역개정)

39.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두 번째는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주님의 양을 사랑하고 먹이고 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따라서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이타적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로 이기적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진도 남을 찍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찍는 셀카 시대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집중되는 삶을 사는데 성경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라고 합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에서 이웃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1서 3장 / 개역개정)

17.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먹여야 합니다. 치라는 것은 돌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방황하는 사람을 먹이고 돌보아야 합니다.

회복을 위한 최고의 방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2.3.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21장 / 개역개정)

18.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떠 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떠 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세 번째는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역사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따라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 개역개정)

24.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우리의 회복과 소망은 죽음까지 그리고 죽음 이후까지 확장됩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온통 죽음의 그림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망한 이스라엘에 소망이 있음을 말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 개역개정)

17.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 결 론

후회에서 회복으로 이끄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릴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처지를 알고 이해하시며,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릴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첫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을 죽음을 각오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이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소망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고, 햇빛이 쏠데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 개역개정)

3.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20.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 시옵소서

5월 22일 주일

□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남5 : 주여 누구시니이까? (행9:1~19)

○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릴 인도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삶에 동시에 만 가지 일을 하시지만 우린 단지 몇 가지만 보이기에 인도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하기도 한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 다섯 번째 예수님과 사도바울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일 하심을 알아봅니다.

○ 본 론

1. 사울

(사도행전 9장 / 개역개정)

1.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2.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기독교 역사에서 사도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신약성경 27권 중 13권을 저술했고, 작자 미상으로 알려진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권을 쓴 사람, 그의 성품상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사도바울,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바울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모습을 사도행전 9장 1~2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180도 바뀌어서 위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전에도 지금도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잘못된 신념으로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고 싶어 적의를 품고 있는 사람, 분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갈등과 분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길이 없는 여

정을 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요로 왔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피식민지 백성이었으며 명문 학벌을 가진 그가 살의를 가지고 살았을까? 왜 그랬을까?

(사도행전 26장 / 개역개정)

14. 우리가 다 땅에 엎드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사울에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쉬운성경에서는 “가시 돋친 채찍을 발로 차 보아야 너만 다칠 뿐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내면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면 자기 발만 아픕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처럼 자기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학자는 사울의 갈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① 두 문화의 갈등입니다. 사상과 문화의 갈등이었습니다.

사울은 헬라 문화권인 갈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그가 히브리 문화의 대표도시 예루살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헬레리즘과 히브리즘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일 문화권에서 살기에 피부로 느껴지지 않지만 다른 문화권으로 이민간 사람들은 매우 절감하는 갈등이라고 합니다.

② 육체적 욕망과 거룩한 삶의 갈등입니다.

사울은 결혼도 하지 않고 살았지만, 육체적 욕망이 없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16절을 보면 육체적 욕망과 성령이 인도하는 삶으로 갈등을 겪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③ 교만과 열등감의 갈등입니다.

인간적 관점으로 보면 자기가 훨씬 대단한 사람인데 어떻게 나사렛 촌동네 청년이 메시아일 수 있는가? 그리고 스데반과 논쟁에서 사실상 패한 후 갈등이 더 커졌을 것입니다. 스데반 안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9절 스데반과 논쟁에서 “갈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중에 사울이 포함)

교만한 사람들의 약점은 열등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열등감과 차

원이 다른 매우 심각한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더 못한다는 거야 이런 거지요. 그래서 적대적 감정과 살기까지 지니게 됩니다.

④ 사랑을 받지 못함에서 오는 갈등입니다.

서신서를 보면 사도바울은 사랑이 철철 넘치는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탱크를 가졌지만, 지금은 그 탱크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울은 훈련은 받았지만, 사랑을 받지 못했던 거 같습니다.

이와 같은 갈등은 우리 모두 겪는 갈등입니다. 이런 갈등이 근본 원인일까? 아닙니다. 근본 원인은 자아가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자아를 죽여야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납니다.

2. 예수님과 만남

이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비쳤습니다. 이로 인해 엎드러졌습니다. 그 순간 사울이라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울은 어떻게 변했을까?

2.1. 주님이 생겼다.

(사도행전 9장 / 개역개정)

3.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지라
4.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도행전 22장 / 개역개정)

8.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첫째, 주님이 생겼습니다. 사울은 빛 앞에 엎드려져서 바로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누구시니이까?” 말합니다. 목숨 바쳐 사랑할 주님이 생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섬길 “주군”을 찾다 만나면 충성을 다하다 영달을 누리기도 하고 결국 토사구팽을 당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세상의 주군은 우릴 책

임질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릴 책임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생긴 것입니다.

2.2. 달려갈 삶의 길이 열렸다.

(사도행전 9장 / 개역개정)

6.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도행전 22장 / 개역개정)

10.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둘째, 달려갈 삶의 길이 열렸고 인도하심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바울이 해야 할 청사진을 한꺼번에 보여 주시지 않으시고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은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전부를 한꺼번에 보여 주시면 우린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2.3. 영적 시야를 얻었다.

(사도행전 9장 / 개역개정)

8.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 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10. 그 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1.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12.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18.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니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셋째, 바울은 믿음으로 보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햇빛보다 강한 빛을 보고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보았느니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았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 개역개정)

7.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했습니다. 14절의 반응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분명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처럼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한 걸음씩 인도하심을 믿고 한걸음 순종하고 내디디면 예상치 못한 다음 걸음을 또 인도하십니다.

④ 삶의 의미가 생겼다.

(사도행전 9장 / 개역개정)

15.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넷째, 삶의 의미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위한 그릇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고난도 있을 것임을 말합니다. 이에 바울은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겠노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릇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는데 형통하기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 아는 것처럼 바울은 투옥되어 살다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그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탄은 축배를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의 순교는 로마를 얻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한 위대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3. 바울의 회심은 나를 위한 것이다.

(디모데전서 1장 / 개역개정)

15.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16.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

해 사도바울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구원하실 때, 바울을 만나 주실 때 우리를 염두에 두셨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고백했던 주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렸으므로 눈으로 보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걸 확신합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걸 확신합니다.

○ 결 론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180도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네 가지를 얻었습니다.

첫째, 주님이 생겼습니다.

둘째, 달려갈 삶의 길이 열렸습니다.

셋째, 영적 시야를 얻었습니다.

넷째, 삶의 의미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와 같은 회심은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바울이 얻은 네 가지는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5월 29일 주일

□ 믿음으로 전진하라5 : 모세의 부모의 믿음 (히11:23)

○ 시작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라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다 부활절을 전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를 통해 지난주 사도바울까지 살펴봤고, 이제 다시 믿음으로 전진하라 시리즈를 이어가려 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라 다섯 번째 모세 부모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오늘 PAT Day로 지키고 있는데 PAT 사역의 본이 되는 분이 모세의 부모입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다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지나가는 삶이라면 너무 아쉬운 것입니다. 무언가 가치 있는 삶을 만들고 계승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삶이란 영원토록 가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이란 “믿음”입니다. 믿음은 성공이나 실패나 절망 가운데서도 가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히11:17~22)

하나님께서서는 이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고 구원의 역사와 온 인류의 역사를 완성하실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선택받은 사람들의 후손은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그 후손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정체성 Identity는 “믿는 자,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를 살펴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고,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여기서 지팡이는 삶의 수단이었었는데 그 삶을 드러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합니다. 요셉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대제국이었던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명성을 말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후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다고 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이삭 ⇨ 야곱 ⇨ 요셉 ⇨ 모세 ⇨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믿음의 계보에서 모세 부모들이 가졌던 믿음을 통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모세 부모의 믿음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 본 론

1.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첫째,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당시 상황은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 죽이라는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지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1.1. 원수가 두려운가? ⇨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히브리서 11장 / 개역개정)

23.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원수가 두려우십니까? 원수의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이 내렸음에도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반비례합니다.

스테이 존스라는 목사님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도록 만들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믿음과 두려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비교하기도 합니다. 두려움은 톱니바퀴 속 뿌려진 모래 같으며, 믿음은 윤활유 즉 기름을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두려움은 톱니바퀴를 돌지 못하게 하고 결국 망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긴 대표적인 한 사람, 골리앗을 물리친 소년 다윗입니다.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왕과 군대가 무서워 두려움이 떨고 있는 상황에서 소년 다윗은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나가서 물리쳤습니다.

원수가 두려우면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 개역개정)

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1.2. 미래가 두려운가? ⇨ 염려를 주께 맡기라

미래가 두려우십니까? 모든 사람은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하십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입니다.

이와 같은 두려울 때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55편 / 개역개정)

22.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베드로전서 5장 / 개역개정)

7.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레미야 29장 / 개역개정)

11.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가 두려우면 모든 염려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특별히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표현 내용의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의 Plan 계획”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입니다.

1.3. 죽음이 두려운가? ⇨ 하나님의 진리를 믿으라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믿으십시오. 믿는 자에게 죽음은 절망이나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과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진리입니다.

(빌립보서 1장 / 개역개정)

2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 개역개정)

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믿음

(사도행전 7장 / 개역개정)

20. 그 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러더니

둘째,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믿음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들은 아름다운 모습을 봤습니다. 어쩌면 딸이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들이 태어났을 때 마음은 기쁨이면서도 버려야 하는 부모의 마음 얼마나 참담한 마음이었을까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은 믿음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봤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을 본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이임을 보았다고 번역하는 성경 버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삶과 자녀들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11절)

3. 갈대 상자 믿음

(출애굽기 2장 / 개역개정)

3.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 가 갈대 사이에 두고

4.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멀리 섰더니

יִרְמְיָהוּ 테바 (출2장3절, 갈대상자)

יִרְמְיָהוּ 테바 (창6장14절, 방주)

셋째, 갈대 상자 믿음입니다.

모세를 살리기 위해 그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처럼 연약한 믿음입니다. 자주 흔들리는 갈대 상자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갈대 상자를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믿음을 보시고 귀하게 보셨습니다.

모세를 애굽의 공주가 구했고 궁중에서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어났습니다. 이 작은 갈대 상자의 믿음은 수식어가 더이상 필요 없는 사람,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 위대한 모세가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한국 땅에서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 (당시 27세) 있습니다. 조선말 대원군 시절 대동강변에 제너럴셔먼호를 타고 왔던 토마스 선교사는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처형당했지만 결국 그가 죽으면서 전해 준 성경책 한 권과 그의 순교가 알려져 수많은 선교사가 조선 땅을 찾았고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으며 대한민국은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갈대 상자는 테바인데 테바는 성경에 두 군데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도 테바이고, 갈대 상자도 테바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한 노아의 방주도 작은 아이 하나를 구하려 만든 갈대 상자도 테바인 것은 이것이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적은 것이라도 믿음은 큰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노아의 방주나 갈대 상자나 똑같습니다.

○ 결 론 (Take Out)

모세 부모의 믿음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믿음이며, 갈대 상자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통해 네 가지를 가지고 돌아가야 합니다. Take Out 해야 합니다.

① 첫째, 죄와 세상의 소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우리에게 안 된다.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예수 믿고 성공할 수 없어 세상은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재능으로 할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듣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리는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대충대충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에 귀 기울이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② 둘째,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말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라 하시기 전에는 그 어떤 경우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③ 셋째, 행동하라 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믿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새벽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읽으십시오. 그리고 금식 기도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굶는다고 해결되겠느냐 합니다.

네, 해결됩니다. 오늘 갈등상태가 해결되냐라고 오늘 다 질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결되었습니다.

④ 넷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 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야 합니다. 공주가 우연히 갈대 상자를 발견할 확률도, 설령 발견해도 노예의 아이를 자기 아들로 키운다는 것은 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어났고 모세는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어 바로의 공주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아들을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왕위를 물려받을 수도 있는 위치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6월 5일 주일

□ 믿음으로 전진하라6 : 믿음으로 거절하다. (히11:24~28)

○ 시작하며

삶에 꼭 필요한 태도 그것은 “거절”입니다. 선택과 거절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의 나는 지금까지의 선택과 거절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 개역개정)

15.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 같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선택은 예수를 주로 영접한 선택일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세상에 대해서는 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빛을 선택한다면 어둠에 대해서 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위대한 선택을 했는데 선택에 앞서 위대한 거절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신명기 3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의 위대한 거절의 삶을 결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다섯 절 각 절 마다 우리가 거절해야 할 것과 선택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무엇을 어떻게 거절하였는지 살펴봅니다.

○ 본 론

1.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신분을 거절했다.

(히브리서 11장 / 개역개정)

24.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첫 번째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신분을 거절했습니다. 애굽의 신분 그 영광스러운 신분, 명예를 거절했다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거절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모세가 거절한 내용에서 애굽을 세상으로 바꾸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의 신분을 거절했다. 이 말은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의 신분, 이 세상의 영예를 거절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거절한 애굽의 신분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 즉 왕족의 신분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주는 모세를 살려 준 사람이고 왕족으로 키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은인이었습니다. 그런 공주를 거부한 것은 배은망덕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절했다는 것은 모세가 바로 공주(키워 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고 너무너무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이 바로 공주는 바로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세상을 대표하는 권력이고 세상을 대표하는 힘이었기 때문에 바로와 관계를 맺는 것은 세상과 관계를 맺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모세의 태도였습니다.

모세가 세상처럼 살지는 않겠다는 것은 세상이 볼 때 어리석은 거절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세가 가졌던 것을 얻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미 그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가진 것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명예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명예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굽에 종으로 팔려 가 총리가 된 요셉,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왕을 제외한 밑에 권력의 삼인방 중 한 사람이 된 다니엘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우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충돌되는 것은 모두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모세처럼 거절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2.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쾌락을 거절했다.

(히브리서 11장 / 개역개정)

25.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두 번째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쾌락을 거절했습니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기를 선택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모세는 두 번의 전환점을 살았습니다. 40세에 자기 백성 편에 서기로 했고(위대한 거절), 80세에 하나님을 만나 큰 전환점을 맞이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됩니다.

모세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 갈등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모든 권리를 누리지만 히브리인으로서 히브리인들이 노예로서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갈등했을 것입니다. 4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민족이나 어떤 종류의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기에 그들과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죄악의 낙을 거절했습니다.

죄악의 낙을 거절했다는 것은 좁은 의미의 쾌락, 육체적인 즐거움을 훨씬 뛰어넘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세속적인 성공, 명성, 부 이런 것들이 주는 즐거움들을 다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길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넓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입니다. 유혹이 없다면 죄는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그 길을 가게 하면서 그 미끼에 걸리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사탄은 미끼로 쾌락을 줍니다. 그러나 이 쾌락은 만족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고 중독됩니다. 그 결과 패망 죽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쾌락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쾌락을 선택하면 그 기쁨이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쾌락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을 것을 보여 주신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 개역개정)

10.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 Tip 유대 혼인잔치의 포도주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식을 며칠 동안 하는데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면 그 사람은 마을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그 명예가 손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우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통상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술에 취한 후 낮은 포도주를 냈다고 한다.

3.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부를 거절했다.

(히브리서 11장 / 개역개정)

26.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세 번째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부를 거절했습니다.

모세는 40세에 히브리인을 돕다 애굽인 관리를 의도치 않고 죽이게 되고 살인 사건을 감추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발각되어 추방되게 됩니다. 영웅에서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애굽 관리가 히브리인을 박해할 때 관여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발각된 후에도 충분히 해명하고 오해를 풀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애굽의 부는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만약 모세가 거부하지 않고 애굽의 부를 선택했다면 아마 지금 우리는 모세를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씀은 모세가 그리스도를 알았을까 하는 궁금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 후 약 1500년 후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예수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맥락으로 볼 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동참하는 수모를 겪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전부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상 주심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바로 그 상, 영원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보상,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 개역개정)

56.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4.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왕을 거절했다.

(히브리서 11장 / 개역개정)

27.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네 번째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왕을 거절했습니다.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광야로 쫓겨났고 40년을 참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때론 ATM기처럼 즉각 즉각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는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은 모세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끝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까지 인도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는지 아실까 이런 걱정을 하시나요? 하나님께 휴대폰이 있다면 휴대폰 단축번호 1번은 바로 나입니다.

(출애굽기 3장 / 개역개정)

1.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5.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종교를 거절했다.

(히브리서 11장 / 개역개정)

28.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다섯째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종교를 거절했습니다. 애굽이 내린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 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 개역개정)

12.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어리석다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죽었지만 순종한 가정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인이기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애굽인이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요한1서 1장 / 개역개정)

7.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귄다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던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능력과 지식과 이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구원은 오직 어린양이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 결 론 : 인생의 범위를 확대시키라

◆ 얻는 것

인생의 범위를 확대시켜야 합니다. 성공이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이 세상이 유한한 줄 알고 단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얻고 모으기만 합니다. 그러나 길게 보는 사람은 나누어 주는 삶을 삽니다.

멀리 봐야 합니다. 인생은 길게 영원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모세는 3천 년 전에 이것을 알았습니다. 모세의 삶의 범위는 점점 확정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을 것은 거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기에 유한한 이 세상만 보고 단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삶을 길게 보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삶을 길게 보십시오.

인생의 범위를 확대시키십시오. 얻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하십시오.

부입니까? 명예입니까? 쾌락입니까? 길게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택할 수 있습니다.

◆ 관점

관점을 크게 하십시오. 숏텀(short term)의 관점이 아닌 롱텀(long term)의 관점을 가지십시오. 숏텀의 관점은 지금 일어나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롱텀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상, 우리의 삶이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관점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 능력 (힘)

모세는 궁중에서 40년을 살 때 위대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살아야 합니다.

6월 12일 주일

□ 믿음으로 전진하라7 : 교회와 세상 (히11:29)

○ 시작하며

1900년도 초에는 야구 투수가 마운드에 올라서면 완투를 하는 것이 기본이었는데 요즘은 야구에서 완투하는 투수가 많지 않습니다. 6이닝만 던지면 선발 투수 요건을 갖추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이닝은 마무리 투수가 하지요. 야구는 9회말 투 아웃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투수 역할이 매우 큼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야 하고 말년의 복이 커야 하며 고종명 즉, 죽는 복이 가장 큰 복이란 말이 있습니다> 교구장 첨언

그런데 우리 삶은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우리는 중도에 포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이를 때까지 ...

(빌립보서 1장 / 개역개정)

6.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 Tip 그리스도 예수의 날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날,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 우리 주 예수의 날 등과 같은 표현되기도 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의미한다.

이 날은 마지막 심판의 날이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 즉, 구속사역의 은혜를 완성하는 날입니다. (만나주석 참고)

빌립보서의 이 말씀은 출애굽기 내용(12장~14장)을 기초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자유를 주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죄의 권세 하에 있었는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구원의 그 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광야 같은 시대를 행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회를 동일시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 교회에 하시는 역사입니다.

<참고>

(사도행전 7장 / 개역개정)

38.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 있는 말씀 받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다.

둘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우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애굽의 세상 즉 세상의 권력 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교회)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애굽(세상)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교회와 세상의 모습입니다.

○ 본 론

1.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실 때

1.1. 여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

(출애굽기 12장 / 개역개정)

35.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36.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시므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실 때 첫째, 여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나옵니다. 노예들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시므로” 도망가는 종이 달라고 하면 줄 주인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필요한 것을 애굽 사람들이 주게 한 것입니다. 빌립보서와 에베소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고>

(빌립보서 4장 / 개역개정)

19.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에베소서 1장 / 개역개정)

3. 찬송하리보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DNA를 가지고 있어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야고보서에서는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미 주셨지만 그래도 구하라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구하되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해야 합니다.

<참고>

(야고보서 4장 / 개역개정)

2.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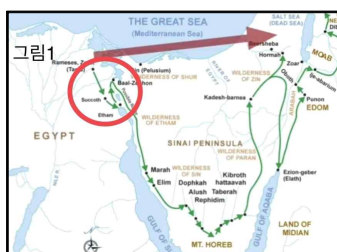
1.2. 지름길을 잘 사용하지 않으신다.

(출애굽기 13장 / 개역개정)

17.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로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18.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둘째, 하나님은 지름길을 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거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3주면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그림 1 참조>



그런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때문에 오해를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지름길을 좋아합니다. 영적 삶도 하루 아침에 성장하기를 원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를 Microwave Christian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 Microwave Christian

영적 삶에서 하루아침에 뭔가 원하는 것이 똑딱 일어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성도, 전자레인지 안에 들어가서 몇 분 딱 맞춰 놓은 후에 '땡' 하면 뭔가 완성되어 나오기를 바라는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유창진 목사)

1.3. 24시간 인도하신다.

(출애굽기 13장 / 개역개정)

20. 그들이 숙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21.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셋째, 24시간 인도하십니다. 다시 말해 365일 24시간 함께 하시면 인도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떠나지 않았습시다.

그런데 한 걸음씩만 보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체 경로를 미리 보여 주지 않으시고 한 걸음씩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릴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1.4. 때때로 당황스러운 길을 주신다.

(출애굽기 14장 / 개역개정)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므딤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3.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넷째, 때때로 당황스러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출애굽 경로를 보면 라암셋 ⇨ 숙곳 ⇨ 에담으로 멀리 도망하다 다시 역행군을 하여 바알스본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들과 다시 가까운 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림 2 참조>

그런데 그 길은 막다른 길, 진퇴양난의 길이었습니다. (앞은 홍해, 뒤는 애굽 군대) 독 안에 든 쥐 신세처럼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를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생명을 얻고자 하느냐? 먼저 죽어라.

다른 사람 위에 서기 원하느냐? 종이 되라.

가지고자 하느냐? 먼저 바치라 나눠주라. 라고 하십니다.

2.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때

2.1. 우리의 두려움을 진정시키신다.

(출애굽기 14장 / 개역개정)

13.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릴 위해 싸우시기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릴 위해 어떻게 싸우시는지 살펴봅시다.

첫째, 우리의 두려움을 진정시키십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 봉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어떤 학자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마라”는 365번 나온다고 하는데 이는 매일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닌가 하고, 실제로는 150번 정도 나옵니다. 신약에 100번 구약에 50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두려움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세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2.2. 명령하신다.

(출애굽기 14장 / 개역개정)

1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둘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들의 행동입니다.

오늘 살펴본 출애굽기 이 부분에 나타난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 ① 백성들은 뒤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자)
- ② 모세는 가만히 있으라
- ③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라 입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는 방향이고 두 개는 필요한 방향입니다.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옛날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던 삶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어야 할 때가 있고,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둘은 잘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데도 하나님 듣겠습니다. 가만히 있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잘못된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라고 하실 때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멈추어 있는 차는 방향 전환이 어렵습니다. 움직일 때 쉽게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움직일 때 즉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할 일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라며 이렇게 움직여야 합니다.

2.3. 적들을 좌절시킨다.

(출애굽기 14장 / 개역개정)

19.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20.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으므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셋째, 적들을 좌절시키십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를 막아 주셨습니다. 빛과 어두움을 구분해 주셨습니다. 바로의 계획이 좌절된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 사이도 하나님께서 막아 주십니다.

2.4. 장애를 길로 바꾸신다.

(출애굽기 14장 / 개역개정)

21.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22.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넷째, 장애를 길로 바꾸어 주시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장애는 홍해였습니다. 그러나 그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불가능한 장애가 변하여 길이 된 것입니다. 40년 후 요단강이라는 장애가 또 한 번 갈라져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장애를 길로 바꾸어 주십니다.

3. 교회와 세상

3.1. 이 땅에서는 교회가 고통을 받는 동안 세상은 번성하는 것 같다.

(요한복음 15장 / 개역개정)

18.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19.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은 교회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고 세상은 번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3.2. 그러나 결국 교회는 구원받고 세상은 멸망한다.

그러나 애굽은 시험하다 결국 모두 죽었습니다. 세상은 멸망하고 교회는 구원받게 됩니다. 믿는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얻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고>

(요한복음 3장 / 개역개정)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6.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1서 5장 / 개역개정)

12.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에베소서 2장 / 개역개정)

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 결 론 (Take Out)

1.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봤습니다. 지금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형상화하십시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살아 그 모든 힘든 것들을 다 이겨 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가까이 접촉하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 보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야고보서 4장 / 개역개정)

8.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신명기 4장 / 개역개정)

7.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3. 하나님의 임재를 행동으로 나타내라 ⇨ 믿음으로 전진하라

6월 19일 주일

□ 믿음으로 전진하라8 : 여리고 성은 왜 무너졌는가? (히11:30)

○ 시작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라 여덟 번째 “여리고 성은 왜 무너졌는가?”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길이지만 약속의 가나안 앞에 있는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난공불락 같은 장애물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불가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 시대 믿음의 여정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약속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여리고 성을 만나면 지금은 물러날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은 믿음으로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았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참고>

(히브리서 11장 / 개역개정)

30. 믿음으로 칠 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마라토너에게 가장 힘든 구간은 출발점과 결승선도 아니라 결승점이 보이지 않는 2/3 지점 정도 왔을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다시 한번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여리고 성을 극복한 사실을 말하면서 믿음으로 성이 무너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원 독자들의 상태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원 독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로마의 박해와 믿는 자들에 대한 조롱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히브리서 원 독자도, 지금 우리도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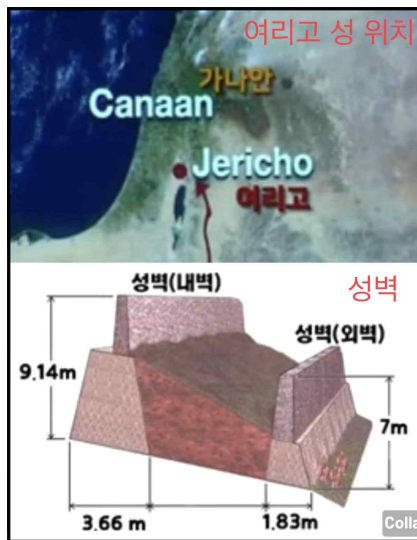
여리고 성을 극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세 가지 그들이 가졌던 믿음을 살펴봅니다.

☞ Tip 여리고 성 <만나 주석>

1. 위치 : 사해에서 북쪽으로 12km, 요단에서 서쪽으로 9km, 또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약 30km 지점이다.

2. 넓이 : 대략 8에이커(1에이커 = 약 4 평방킬로미터) 정도로 추정되는데, 여호수아 시대에는 가나안의 평균 도시 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그 성읍 규모에 비하여 여리고 성의 비중은 매우 컸다.

3. 특징



3.1. 좋은 샘들을 가진 ‘오아시스’ 지대인 만큼 일찍부터 개발된 고대 도성으로서 성경은 일명 ‘종려의 성읍’으로 지칭하기도 했다(신 34:3). 그리고 요단 대평원 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여리고 성은 그 전략적 위치상 매우 중요한 가나안의 방어 거점으로서 군사 요충지일 뿐 아니라 가나안 중부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였다.

3.2. 직접적인 군사 작전으로서는 거의 공격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천연 요새였다. 즉 가파른 경사지 정상에 위치하고 있는 여리고 성은 적들의 침입에 대비하여 성 밖으로 3~4m 높이의 석조 장애물을 설치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본 성의 중앙 벽과 약 35도 각도로 경사지에 만들었다고 한다.

○ 본 론

1. 하나님의 승리가 확실함을 믿는 믿음

(여호수아 6장 / 개역개정)

1.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2.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첫째, 하나님의 승리가 확실함을 믿는 믿음입니다. 비록 악이 이기는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보라~넘겨주었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과거 완료형

으로 이미 넘겨주었다는 뜻입니다. 싸움을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하여 성을 점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현재 우리 문제들에 대한 승리를 과거 시제로 말씀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 개역개정)

10.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 “폐하시고” 즉, 이미 폐했다 합니다. 우린 아직 죽지 않았는데 사망이 폐했다 하십니다.

(로마서 8장 / 개역개정)

30.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즉,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았는데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 개역개정)

6.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 “하늘에 앉히시니” 즉, 이미 앉히셨다 하십니다. 아직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앞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실 것이니 미래형으로 써야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과거형으로 쓰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곳에 앉히셨다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미래는 보장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전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미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걷는 자만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

(여호수아 6장 / 개역개정)

3.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옛새 동안을 그리하라
4.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5.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6. 주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와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7.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와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둘째,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이상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리석은 계획처럼 보입니다.

본문 3~7절의 말씀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성을 말없이 하루에 1번씩 6일을 돌아라. 무기가 아니라 나팔을 들고 돌아라. 그리고 7일째는 7번 돌며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이런 작전계획을 만약 참모가 계획한다면 아마 바로 보직 해임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모한 계획을 믿고 행한 결과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리고 성은 성을 돌거나 나팔을 불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걷는 것과 나팔은 성이 무너진 것과 100% 상관이 없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100%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말씀하셨을까?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이 zero인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리석은 계획이라고 할 것이기에 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세상 군대들이 사용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 사랑이요, 겸손이고 봉사입니다.

사랑하고 무릎 꿇고 섬기며 축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최선입니다.

<참고>

(고린도후서 10장 / 개역개정)

4.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3. 하나님의 시간이 완벽함을 믿는 믿음

(여호수아 6장 / 개역개정)

14.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옛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15.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 날뿐이었던라
 20.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셋째, 하나님의 시간이 완벽함을 믿는 믿음입니다. 끝없이 기다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6번 돌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아마 웅성웅성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변화의 과정을 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7번째 돌았을 때 무너졌습니다.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지만 일어났습니다. 7일째 무너졌습니다.

힘드시나요? 그러나 6일째 멈추고 포기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6에서 멈추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 개역개정)

9.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때가 7일째입니다.

○ 결 론

여리고 성은 왜 무너졌는가?

하나님의 승리가 확실함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시간이 완벽함을 믿는 믿음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공통적인 단어가 있는데 “믿음”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종 우리는 잘못된 공식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모든 위험과 위협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 안전하다고 느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안전에 이르는 길은 진정한 회복에 이르는 길은 내가 미래를 직면할 때 하나님을 믿는 그 정도 믿음의 정도가 내 용기를 결정합니다.”

결론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히브리서 12장 / 개역개정)

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6월 26일 주일

□ 믿음으로 전진하라9 : 라합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히11:31)

○ 시작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라 아홉 번째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이름 라합은 그녀는 창녀였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 쉽지 않고 숨기고 싶은 직업이었지만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은 정탐꾼에게 구원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라합의 믿음을 살펴봅니다.

☞ Tip 라합 이야기 Fact

1. 라합은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다. 라합을 미화하기 위하여 요세푸스(Josephus)와 탈굼(Targum), 그리고 유대 랍비들은 ‘기생’(히, 조나)을 ‘여관 주인’으로 해석하기도 한다(Kroeze). 그러나 히 11:31, 약 2:25은 라합을 분명히 ‘기생’(헬, 포르네)이라고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관 주인’으로 볼 수는 없다(Calvin, Keil, Lange, Matthew Henry). 더구나 개역개정 성경의 ‘기생’은 공동번역처럼 ‘창녀’로 번역되는 것이 더 원어의 뜻에 가깝다. <만나 주석>

2.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준다. (수2:4)

그 결과 여리고 성 함락시 유일하게 라합의 가정만 구원을 받는다.

3. 예수님 족보에 등장 (마1:5)

살몬 (라합이 숨겨준 정탐꾼 중 한 명)과 라합의 결혼 ⇨ 보아스 ⇨ 오벧 ⇨ 이새 ⇨ 다윗, 즉, 다윗 왕의 고조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5명의 여자 중 (다말, 라합, 룻, 우리야의 아내=밧세바, 마리아) 한 명

○ 본 론

1. 라합의 믿음 : 구원받는 믿음

첫째, 라합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여리고 성의 많은 사람 중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은 라합뿐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절망 때문입니다.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수2:13) 이것이 라합의 상태였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결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그때 가 봐서 그때가 되었을 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늦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자신의 삶을 멀리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사건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방향으로 봐야 합니다.

가까이 보고 내 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면 인생 결말에 도달했을 때 그때 “나는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나는 멸망하는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한탄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멀리 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일종의 멀리 보기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넓은 문은 많은 사람이 가는 편한 길이지만 그 끝은 멸망이다. 좁은 문은 험작하고 힘들어서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 하지만 결말은 생명이다.

지금 가는 길을 멀리 보고 잘못된 길이라면 돌아서서 바른길로 가야 합니다. 알면서도 계속 간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라합은 이대로 있다가는 죽는다.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죽는 절망 상태를 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두드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라합은 돌아섰고 결국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라합의 믿음을 살펴봅시다.

1.1.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다.

(에베소서 2장 / 개역개정)

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합의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구원은 나의 선택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결단한 것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잠시 멈춘 것은 이 한 사람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순서로 보면 은혜 ⇨ 믿음 ⇨ 선행 일입니다. 믿음은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믿음 역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창녀 라합, 십자가에서 오른편 강도를 구원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신다면 대통령이나 유명한 성직자가 아니라 거지나 마약 중독자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Amazing Grace 저자 존 뉴턴 그는 악랄한 노예상이었습니다. 인신매매범이었습니다. 그를 변화시켜 이 위대한 찬양하게 했습니다. <존 뉴턴 생애 참조>

하나님의 은혜를 잘 나타내는 것이 누가복음 15장 탕자를 기다리다 달려가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거리가 많이 남았는데 왜 달려갔을까?

유대사회에서 성인 남성이 달려간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달려간 것은 당시 공동체 처벌 관례인 캐자차 의식 때문입니다.

유산을 가로채거나 유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사람을 공동체가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달려가 아들을 보호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2.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발생한다.

(여호수아 2장 / 개역개정)

9.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10.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의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발생했습니다.

라합이 목숨을 걸고 결단한 것은(여리고 입장에서는 매국노이고 발각되면 죽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라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40년 전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과 라합은 정반대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0년 전 정탐꾼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두렵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렵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라합의 위대한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 개역개정)

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을 들어서 믿음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보지 못했지만 듣고 믿었습니다.

<참고>

(고린도후서 5장 / 개역개정)

7.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1.3. 구원받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낸다.

(야고보서 2장 / 개역개정)

25.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합의 구원받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났습니다.

믿는다면 행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라합의 행함은 죽음을 무릅쓴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은 정탐꾼을 숨겨 준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믿고 붉은 줄을 매달았습니다.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릴 구원하신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은혜 ⇨ 믿음 ⇨ 행함 순서입니다. 행함이 먼저라고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4. 구원받는 믿음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나간다.

(여호수아 2장 / 개역개정)

12.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13.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의 구원받는 믿음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구원의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사랑이 없거나 사람이길 포기한 사람일 것입니다.

전하되 가족, 가까운 일가친척, 그리고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형 베드로에게 전했습니다.

(로마서 10장 / 개역개정)

1.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동족의 구원을 위해 전했습니다.

라합은 가족들을 붉은 줄을 매단 자기의 집 즉 안전지대로 모이도록 전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안전지대입니다. 교회로 모이도록 전해야 합니다.

◆ 소결론 :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행했습니다.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온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2.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

2.1. 어떤 죄인도 구원하신다.

이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대를 초월한 영원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죄인도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못할 어떤 죄인도 없다는 사실 나는 너무나 죄인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라합과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차례는 “나”입니다. 천국은 자격없는 사람만 가는 곳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2.2.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구원하신다.

(에베소서 1장 / 쉬운말 성경)

7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독생자 예수의 피를 통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붉은 줄을 매단 라합의 집에 모인 사람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3. 라합과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 개역개정)

1.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5.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집니다. 기생이었던 라합은 보아스 오벳 다윗으로 이어졌으며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기생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계보에 공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 결 론

예수님 족보에 등장하는 다섯 명의 여자 중 한 사람 라합, 그는 이방여인이고 기생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숨기고 싶은 직업까지 포함해서 족보에 기록한 것은 중요한 인물이고 그 믿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의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라합의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발생했습니다.

라합의 구원받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났습니다.

라합의 구원받는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합과 그 가족의 구원을 통해 주는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죄인도 구원하십니다. 창녀 라합, 십자가의 강도도 그리고 나 같은 죄인도...

붉은 줄을 매단 라합의 집에 모인 사람만 구원받은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구원하십니다.

라합의 자손으로 다윗 왕이 태어났고,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라합을 사용하신 것처럼 이제 우릴 사용하십니다.

☞ Tip 존 뉴턴 생애

- 1725.7.23. 런던에서 선장의 아들로 출생
- 1744. 해군 중위로 복무 중 탈영
- 1748. 노예선에서 일하다 노예선 선장이 됨
- 1748.5.10. 회심, 회심 후에도 7년간 더 선장으로 일함
- 1755. 선장을 그만둠
- 1764. (39세) 목사 안수받음
- 1760.~1770. Amazing Grace로 알려진 “신앙의 회고와 소망”(Faith’s Review and Expectation) 찬송이 만들어짐
- 1807.12.21. (82세) 소천, 사망 2~3년 전부터 시력 상실, 이때 고백한 내용
“나의 기억은 점점 사라져갑니다. 그러나 나는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하나는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세주라는 것입니다.”